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4-5
ISBN 979-11-90449-10-6

인천시 세대 간 이해 증진 방안 연구: 50+세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책임연구원

한지수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윤정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5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 11
제2절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 ····· 18
제3절 Q방법론 ····· 22

제3장 50+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의 상호 인식 분석

제1절 세대 별 상호 인식 유형 파악을 위한 Q방법론 적용 과정 ····· 29
제2절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 35
제3절 청장년 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 53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 75
제2절 결론 ····· 88

참고문헌 ····· 90

표 목차

〈표 1-1〉 연구 추진 일정 ····· 8
〈표 2-1〉 우리 사회 세대 간 소통 수준(2021-2023) ····· 12
〈표 2-2〉 다른 연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2023) ····· 13
〈표 2-3〉 우리 사회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 정도 ····· 14
〈표 2-4〉 우리 사회의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2023) ····· 16
〈표 2-5〉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해외 사례 ····· 18
〈표 2-6〉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활동에 유용한 자료 ····· 20
〈표 2-7〉 서울시 50+재단 보람일자리-지역사회돌봄단 ····· 21
〈표 2-8〉 Q방법론과 질적연구, 양적 연구의 차이점 ····· 22
〈표 2-9〉 Q방법론과 R 방법론의 차이 ····· 25
〈표 3-1〉 P표본의 일반적 특성 ····· 31
〈표 3-2〉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요인별 적재치 ····· 35
〈표 3-3〉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별 아이겐값 및 설명량 ····· 36
〈표 3-4〉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간의 상관관계 ····· 36
〈표 3-5〉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 ····· 37
〈표 3-6〉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3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진술문 ····· 38
〈표 3-7〉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39
〈표 3-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42
〈표 3-9〉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45
〈표 3-10〉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요인 별 적재치 ····· 53
〈표 3-11〉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별 아이겐값 및 설명량 ····· 54
〈표 3-12〉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간의 상관관계 ····· 54
〈표 3-13〉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 ····· 55
〈표 3-14〉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3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양상을 나타내는 진술문 ····· 56
〈표 3-15〉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58

〈표 3-16〉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61
〈표 3-17〉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 64
〈표 4-1〉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역할극 사례 예시 ····· 77
〈표 4-2〉 컨텐츠 활용 이해 증진 활동 예시 ····· 81
〈표 4-3〉 세대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확대 예시 ····· 8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 7
〈그림 3-1〉 Q방법론 수행 절차 ····· 29
〈그림 3-2〉 P집단 대상 Q분류표 ····· 32
〈그림 3-3〉 P집단 대상 Q분류 조사 ····· 32
〈그림 3-4〉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스크리도표 ····· 35
〈그림 3-5〉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1유형 문항 ···· 41
〈그림 3-6〉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2유형 문항 ···· 44
〈그림 3-7〉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3유형 문항 ···· 47
〈그림 3-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 50
〈그림 3-9〉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스크리도표 ····· 53
〈그림 3-10〉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1유형 문항 ···· 60
〈그림 3-11〉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2유형 문항 ···· 63
〈그림 3-12〉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3유형 문항 ···· 66
〈그림 3-13〉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 69
〈그림 4-1〉 WHO 제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 84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GNAFCC)와 같은 기구가 형성되었다.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단위의 지자체가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정책과 사업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GNAFCC는 모든 연령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책과 사업의 주요 대상이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 인천시에서 수행한 2023년 세대통합 관련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드러났고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세대 간 연속성의 중간자이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50+세대와 다른 세대와의 교류, 이해가 중요함이 강조되었다. 이에 50+세대와 근접한 아래 세대인 청장년세대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또한 연구를 통하여 세대통합 사업에서 소외된 50+세대를 포용할 뿐 아니라 이들이 세대 간 가교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1. 연구 내용

1) 세대 간 인식 유형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세대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2)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 도출을 통하여 세대 간 거리감이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악된 갈등, 거리감의 원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현장에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세대인식이 확산되며 50+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류 증진 방안 및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대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세대통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세대통합 사업 가운데 50+세대와 청장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Q방법론을 설명함으로써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이해 유형 파악에 이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Q방법론은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연구 과정에서 50+세대와 청장년세대, 두 집단에 대하여 각각 Q샘플 수집, Q표본 구성, P집단 구성, Q분류, 유형화, 해석을 진행하였다. 전체 연구 과정의 타당성 검증, 유형화와 해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Q방법론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였다.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세대갈등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가치규범에 대한 인식, 경제적 자원의 분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가족 안에서의 역학, 세대 간의 접촉 기회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인류 역사를 통해 세대갈등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현상

이다. 그런데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성향,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의 분포, 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첨예한 갈등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연령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수준은 낮아지고 감정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사회통합의 주요 요인인 세대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연계가 약화되어 사회의 분절과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대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모든 연령 집단, 모든 세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세대 간의 연속성과 공통적 유산의 전승은 모든 세대가 앞선 세대와 뒷세대를 모두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50+세대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간의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은 노인세대와 아동세대라는 연령적 거리가 큰 두 세대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노인과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청장년층과 50+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결속하여 세대 간 연속성을 보장할 때 탄탄한 사회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세대가 연속된 연령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세대통합 역시 연속성이 중요하다.

제2절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

국내·외를 막론하고 50+세대와 청장년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 사례 가운데는 청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의 멘토링 프로그램(CoGenerate. 2024)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멘토는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은퇴자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50+세대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세대 간 이해 증진의 국내 사례는 서울시 50+재단의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50+재단은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람일자리의 일부 사업에서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교류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선배시민 멘토단의 경우 중장년세대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세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이나 진로 관련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Q방법론

Q방법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과 가치관을 정량화화여 분석한 방법론으로써, 이를 통해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태도나 신념,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Q방법론은 기본적으로 Q분류의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Q분류 간의 상호관련성과 요인 분석을 결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Q방법론은 응답자가 스스로 진술문을 비교하여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Q방법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Q방법론은 마음의 내적 특성을 다루는 주관성의 과학이다. 둘째, Q방법론은 가설을 검증하는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해나가는 추론적 방법론이다. 셋째, Q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특성을 포함하는 상호 보완적인 연구방법론이다. 넷째, Q방법론은 개인 간의 변이가 아닌 개인 내의 변인을 설명한다. 이와 같은 특성은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유형화하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므로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제3장 50+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의 상호 인식 분석

제1절 세대 별 상호 인식 유형 파악을 위한 Q방법론 적용 과정

본 연구는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Q방법론을 수행하였다.

분석 단계에서 각 세대가 분류한 진술문 32개 가운데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0.1)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 ≤-0.1)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제2절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 왔음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면이 있으나 과거의 50+세대보다는 이런 특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한다. 반면,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여러 측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인식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제1유형-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세대 변화의 중간자

진술문	표준점수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62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59
정치에 관심이 많다	1.43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1.36
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1.13
정신건강이 약하다	-1.05
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1.30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32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35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1.62
성인지감수성이 높다	-1.82

-제2유형-
신뢰할만한 경제활동의 주역

진술문	표준점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1.63
정치에 관심이 많다	1.43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3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26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07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19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1.30
신체건강이 약하다	-1.34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54
정신건강이 약하다	-2.03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2.42

-제3유형-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대착오자

진술문	표준점수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77
근면성실하다	1.41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24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9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1.17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1.15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06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0
신체건강이 약하다	-1.54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1.67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한다	-1.97

제3절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50+세대가 인식하는 청장년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50+세대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장년세대가 대면이나 전화와 같은 실제적 관계 형성보다는 카톡, 문자, SNS와 같은 비접촉형 교류를 선호한다고 인식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며 동시에 오랜 시간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세대와 단절된 듯한 인상을 준다. 시간이나 재정적 자원 역시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고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처럼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안에서 개별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다음에서는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을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제1유형-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진술문	표준점수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1.87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55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1.36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27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25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1.14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5
정치에 관심이 많다(*)	-1.20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1.22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4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25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쉰다	-1.3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6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1.83

-제2유형-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자

진술문	표준점수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88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79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48
사고가 개방적이다	1.32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	1.18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1.01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1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쉰다	-1.15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19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4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1.54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29

-제3유형-
의존적인 이기주의자

진술문	표준점수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1.99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1.71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20
부모에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2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1.07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1.02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7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09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09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1.51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2.38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1. 세대융합 프로그램 개발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 간의 접촉, 교류,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양 세대가 교류하는 방식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강화하기 보다는 상대 세대의 처지와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1) 세대별 상황 이해를 위한 역할극 2) 세대를 묘사하는 도서, 영화 등 컨텐츠를 활용한 이해 증진 활동 3) 기존의 세대별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 확대 4)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모든 세대를 참여 대상으로 하도록 독려 5)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의 장 마련에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대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평가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였다.

2. 세대 전형성에 대한 인식 개선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에서는 각 세대에 대한 전형성이 드러난다. 청장년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편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50+세대는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각 세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 구성원이 모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공정하지 못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본 연구는 1) 각 세대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 개선,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법 모색 2)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확산: 법정 의무 교육 등에 포함 고려 3)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개선 촉구를 제안하였다.

제2절 결론

본 연구는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상대 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Q방법론을 통해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을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고,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역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50+세대는 청장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하여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청장년세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 경제적 태도, 디지털 의존도에 대하여서는 상반된 인식 형태를 보였다.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세대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50+세대가 이룬 경제적 성취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서는 기득권 유지와 독립성 유지라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또한 50+세대가 현실과 미래에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다르게 표출되었다.

본 연구는 도출된 두 세대의 인식 유형을 기반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50+세대와 다른 세대, 특별히 청장년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제안하였다. . 또한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에 대하여 지니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에 세대 간 이해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컨텐츠에 대한 감시와 개선 촉구를 제안하여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천시는 2022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GNAFCC)[1]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연령이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GNAFCC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인천시는 제1차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인천시는 GNAFCC가 선정한 8대 영역을 재구성하여 자체적으로 5대 영역을 구축하고 13개 세부과제와 62개 세부사업을 구축하였다. GNAFCC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시행한 '인천시 고령친화도 조사'연구(하석철, 2022)에 따르면 인천시는 물리적 환경보다 인식 관련 영역의 고령친화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하석철, 2022). 그 가운데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는 2021년 479점으로 GNAFCC의 8개 영역 가운데 7위에 그쳤다. 그런데 이 점수는 2018년의 542점 보다도 63점이나 하락한 점수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많은 점수가 떨어진 영역이기도 하다.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 가운데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대 간 교류와 가족 내 교류', '세대 간 교류 기회의 정기성' 등은 2018년 대비 2021년 점수 하락폭이 가장 큰 항목이었다. 또 다른 하위 항목인 '세대 간 교류에서의 역할 기회 충분도'는 두 조사에서 모두 최하점을 받아 인천시의 세대 간 거리와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2023년 '인천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존중과 사회통합' 영역과 관련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한지수·박윤정, 2023). 해당 연구는 노인 관련 정책이 주로 돌봄, 사회참여에 집중되어 있고 물리적 환경 개선 관련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반면, 인식개선에 대한 연구나 접근에는 소극적이라는 평가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특히 노인세대와 다른 세대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자, 노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현장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ocused GrouPInterveiw: 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65세 이상의 노인세대가 다른 세대와 교류하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50+세대 즉, 50대와 60대의 장년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참여자들은 노인세대와 젊은세대를 이어 줄 50세대가 젊은세대와 교류, 이해, 상호작용

1)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하 GNAFCC

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1)]

2023년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실제로 50+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정책이 일자리, 경력개발, 취창업과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음 세대와의 교류나 이해에 대하여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음이 드러났다. 또한 50+세대의 특성과 욕구, 다른 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이나 관계하는 양상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세대 간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50+세대와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조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50+세대와 다른 세대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유형별로 인식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연구 설계에서는 50+세대가 다른 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세대에 대한 인식을 모두 조사하는 경우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해와 교류를 증진할 필요가 있는 세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대 간의 공동체 의식과 유기적 연대를 통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Sergei, 2008) 50+세대와 가장 인접한 세대를 목표 세대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장년세대(20~49세)와 50+세대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고 각 인식 유형에 따라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재설정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세대통합 사업에서 소외된 50+세대를 포용할 뿐 아니라 이들이 세대 간 가교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시에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구축한다는 GNAFCC의 목적 가운데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연구 대상자인 '50+세대'는 50대와 60대, '청장년세대'는 25-49세로 구분하였다. '아동층'은 만 17세 까지의 사람이며 '노년층'은 65세 이상을 의미한다. '고령층'이나 '젊은층'은 특정 연령을 지칭하기 보다는 다른 세대와 비교시 더 나이가 든 사람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을 지칭한다. '청년층'은 15-34세의 사람을 의미하지만, 사회통합실태조사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19-34세만 포함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절차

1. 연구 내용

1) 세대 간 인식 유형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하여 각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세대가 서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수집하고 종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세대별 인식의 유형화를 위해서는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Q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후 연구자의 분석을 통해 각 유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명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2)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 도출을 통하여 세대 간 거리감이나 갈등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악된 갈등, 거리감의 원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별히 두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현상에서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긍정적인 세대인식이 확산되며 50+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세대교류 증진 방안 및 후속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 방법

1) 문헌 고찰

문헌 고찰에서는 먼저 GNAFCC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대통합과 존중 및 사회통합 영역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50+세대를 중심으로 세대 간 이해 증진 방안 연구를 수행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2023년 수행한 '인천시 세대통합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대통합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세대통합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세대통합 사업 가운데 50+세대와 청장년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를 찾아 소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사용한 Q방법론을 설명함으로써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이해 유형 파악에 이용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2) 조사분석: Q방법론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Q방법론은 참여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Q방법론은 Q표본 구성을 위한 샘플 수집, 수집된 샘플을 분류하여 대표 표본 작성, P집단 구성 및 인터뷰, Q분류, 유형화와 해석의 단계로 진행된다. 각 단계는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의 융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Q표본 구성 단계에서 광범위한 샘플 진술문을 수집함으로써 표본의 객관성이 확보되므로 이는 정량적 방법의 장점을 수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P집단 참여자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함으로서 정성적 방법이 가지는 장점인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하다.

3)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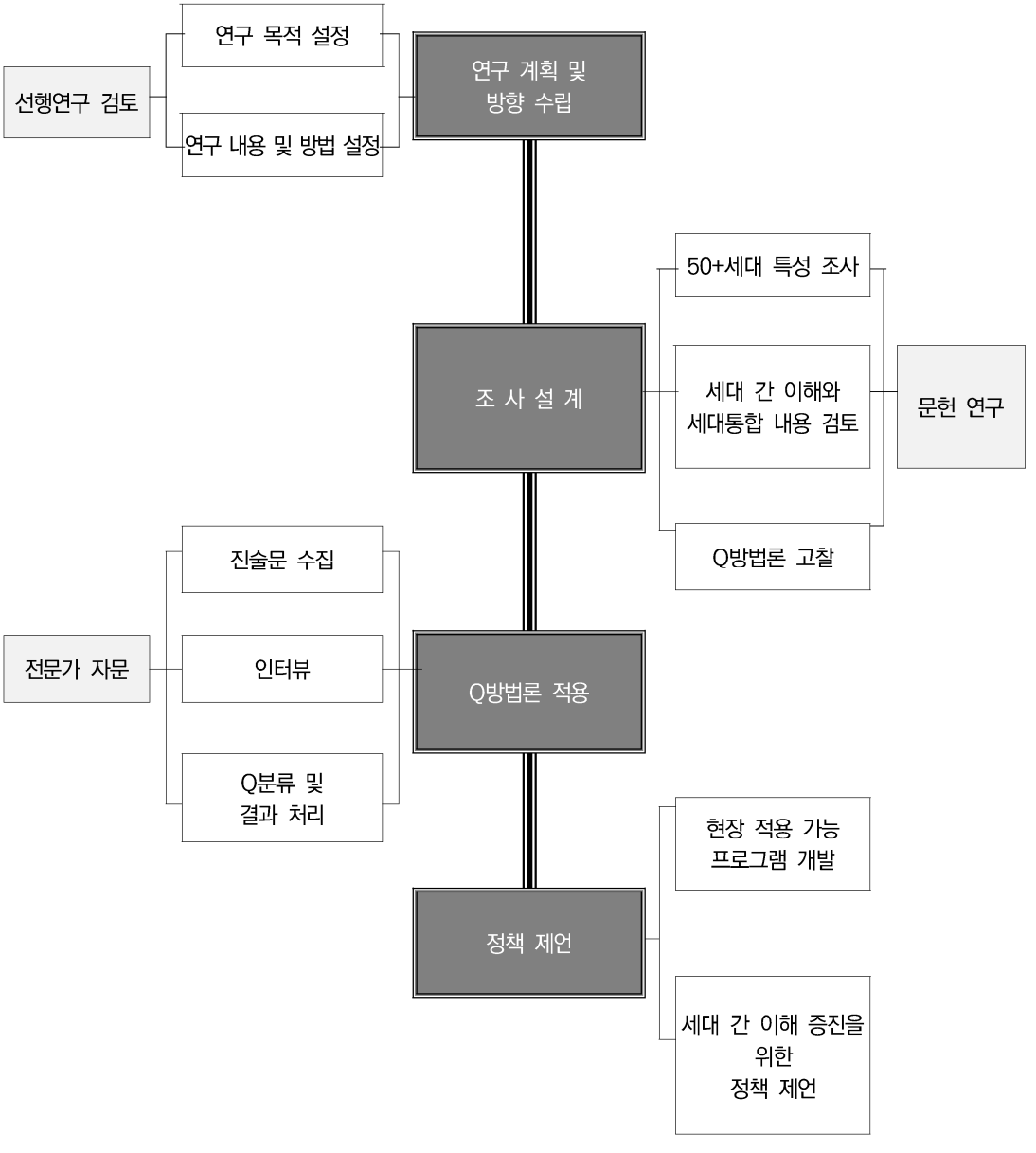
본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Q방법론은 정교한 표본 구성, 유형화와 해석에서 연구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가 지나치게 주관적 견해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거나 적절하지 못한 표본을 구성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Q방법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객관성 있게 연구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는 Q샘플 수집, 분류, Q표본 구성, P집단 구성, 유형화의 과정이 다당하게 진행되었는지, 유형화와 해석이 충분한 신뢰도를 가지는지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50+세대의 인식만을 조사하기 보다는 청장년세대의 인식을 함께 조사하여 비교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연구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 또한 검토받았다.

3 연구 절차

1) 추진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 추진 절차



2) 추진 일정

〈표 1-1〉 연구 추진 일정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 설계	◦ 정책검토 및 관계자 의견 수렴												
착수 보고	◦ 연구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수행계획서 작성												
조사 설계	◦ Q진술문 수집												
	◦ Q표본 구성												
	◦ P표본 구성												
Q방법론 수행	◦ P표본 인터뷰												
	◦ Q분류 분석												
	◦ 유형 분석												
	◦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중간 보고	◦ 중간보고회 개최												
자문	◦ 자문												
	◦ 협업 기관으로부터 상시 의견 청취												
최종 보고	◦ 연구심의												
	◦ 최종보고회 개최												
보고서 발간	◦ 수정 및 최종본 인쇄												

2 문헌 연구

제1절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제2절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
제3절 Q방법론

제2장 문헌 연구

제1절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

1. 세대 간 이해 관련 선행 연구

1) 세대갈등의 심화

세대란 사람의 한평생을 의미하는 세世와 대신하여 잇는다는 의미의 대代가 합쳐진 말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세대는 통상 약 30년을 단위로 하는 연령층으로 구분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10여 년을 단위로 다양한 명칭을 부여하기도 한다. 특히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광복 세대, 베이비붐 세대, 386세대, X세대, MZ세대, 알파세대 등으로 각 연령층의 특징을 표현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세대의 명칭은 사회적이고 거시적인 세대 규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세대는 생물학적 연속성의 의미를 지니는(Generation)보다는 출생코호트(Cohort)에 가까운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권채리, 2022). 각 세대 집단은 삶의 여러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양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 집단과 구분된다. 이러한 세대의 특성은 다른 세대 집단과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이해 관계에 의하여 갈등 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세대갈등은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가치규범에 대한 인식, 경제적 자원의 분포,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관계, 가족 안에서의 역학, 세대 간의 접촉 기회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이재경, 2018; 정순둘 외, 2021; 임유진, 2021; 황선재, 2022). 인류 역사를 통해 세대갈등은 모든 시대에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현상이다. 연령에 따라 사회 구조와 가치 규범에 대한 인식,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세대 별 특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도 세대갈등은 존재하는데 과거에 비해 세대 간 불평등이나 불공정성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들 강화 요인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 등의 영향으로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성향,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적 자원의 분포, 복지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첨예한 갈등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족 제도는 세대 간의 갈등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나 문화·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가구 세대원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가족 내 역학 관계의 변화는 가족 제도가 지녔던 세대 갈등 완충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

등이 심화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증가하였으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약화되어 세대 간 갈등이 첨예화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2)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거리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거리는 매년 수행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국가승인통계로서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태도 등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변화를 추적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회통합 인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표 2-1〉은 우리 사회의 각 세대가 다른 세대와의 소통 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여준다. 총 4점을 만점으로 소통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2022년과 2023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2021년보다는 낮아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대가 체감하는 세대 간 소통 수준은 다른 연령 집단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수준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른 연령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우리 사회 세대 간 소통 수준((2021-2023)

(단위:%, 점)

구 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음	약간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	소통이 이루어짐	평균
2021	9.0	49.7	58.7	37.2	4.2	41.4	2.4
2022	9.4	53.8	63.2	33.8	3.0	36.8	2.3
2023	9.7	52.4	62.1	35.1	2.8	37.9	2.3
연령별 세대 간 소통 수준 체감도(2023)							
19-29세	11.7	51.0	62.7	33.0	4.3	37.3	2.3
30-39세	10.8	49.4	60.2	37.6	2.2	39.8	2.3
40-49세	7.9	51.5	59.4	37.4	3.2	40.6	2.4
50-59세	9.5	51.6	61.1	36.0	2.9	38.9	2.3
60세 이상	9.4	55.6	65.0	32.9	2.0	34.9	2.3
65세 이상	10.3	54.9	65.2	32.7	2.2	34.9	2.3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3). 재구성.

〈표 2-2〉는 청년층과 고령층 대한 각 연령 집단의 감정적 거리를 온도로 표시한 것이다. 고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은 평균 59.1℃로 청년층에 대한 거리감의 평균 온도인 61.6℃보다 2.5℃ 낮다. 더욱이 연령이 낮을수록 고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의 온도는 낮게 나타난다. 이것은 젊은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에 대하여 느끼는 거리감이 먼 것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청년층에 대하여 느끼는 온도는 고령층에 비해 높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층에 대하여 가지는 거리감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 결과를 통해 각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대하여 가지는 거리감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청년층과 고령층은 자신들과 유사한 연령 집단보다 연령 차이가 큰 집단에 대하여 거리감을 더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2〉 다른 연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2023)

(단위:%,℃)

구 분	0-20℃ 차갑다	21-40℃	41-60℃	61-80℃	81-100℃ 따뜻하다	평균
고령층에 대하여	5.0	10.4	31.6	36.9	12.7	59.1
연령별 고령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 (2023)						
19-29세	6.2	13.7	38.6	33.8	7.6	54.9
30-39세	6.0	11.9	36.4	39.2	6.6	56.1
40-49세	4.5	11.7	31.0	44.3	8.5	58.4
50-59세	5.4	8.2	30.5	46.2	9.7	59.6
60세 이상	4.1	8.6	27.1	43.5	16.7	62.4
65세 이상	4.0	8.6	26.3	44.0	17.0	62.8
청년층에 대하여	4.6	9.5	26.2	43.9	15.8	61.6
연령별 청년층에 대한 감정적 거리(2023)						
19-29세	3.1	6.0	18.9	46.1	26.0	67.3
30-39세	4.5	7.2	19.9	50.4	18.1	64.3
40-49세	3.7	8.5	24.9	46.1	16.8	63.0
50-59세	5.9	9.0	28.3	45.6	11.3	59.8
60세 이상	5.2	13.1	32.0	37.4	12.2	57.8
65세 이상	5.6	13.9	32.8	36.3	11.4	56.9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3). 재구성.

'사회통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구성한 위의 〈표 2-1〉과 〈표 2-2〉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각 세대는 다른 세대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연령의 차이가 큰 세대에 대하여 감정적인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우리 사회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은 2021년 이후 매년 개선되고 있다.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55.2%로 2021년의 60.5%보다 5.3%P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고령층과 젊은층의 상호 이해 정도가 높아져서 갈등이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대통합 관련 인식개선 사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연령 분절적 복지정책이 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반면에,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줄어들어 갈등도 함께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 정도 감소가 긍정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세대 간의 단절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부정적 신호임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의 〈표 2-1〉과 〈표 2-2〉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소통 수준은 낮아지고 감정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이 결과를 고려한다면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 정도는 세대 간의 교류가 적어지면서 갈등 유발 기회가 함께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3〉 우리 사회 고령층과 젊은층의 갈등 정도(2021-2023)

(단위:%, 점)

구 분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심하다	평균
2021	3.2	36.3	39.5	48.7	11.8	60.5	2.7
2022	2.7	37.7	40.4	49.3	10.3	59.6	2.6
2023	5.4	39.4	44.8	46.6	8.6	55.2	2.6
연령별 고령층-젊은층 갈등 정도(2023)							
19-29세	3.9	40.5	44.4	46.1	9.5	55.6	2.6
30-39세	5.2	39.1	44.3	46.6	9.2	55.8	2.6
40-49세	7.4	39.9	47.3	44.6	8.1	52.7	2.5
50-59세	5.0	39.3	44.3	46.2	9.3	55.5	2.6
60세 이상	5.3	38.8	44.1	48.2	7.7	55.9	2.6
65세 이상	5.4	37.6	43.0	49.0	8.0	57.0	2.6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3). 재구성.

2. 세대 간 이해와 사회통합

김찬호는 '인간은 기억을 간직하고 역사를 중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 종적 특성에 기반한 공동체 의식과 유기적 연대'(김찬호, 2018)가 바로 세대통합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공통적 유산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사회통합'이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이어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차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적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여기서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통합을 의미하며 횡적 관계에서의 신뢰와 결속 같은 사회적 관계와 소득불평등과 같은 물적 토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두 가지 정의를 종합해 보면, 세대 간의 사회통합은 서로의 관계, 상호작용, 연계가 강화되어 서로를 갈등의 대상이 아닌 신뢰와 결속의 연대자로 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각기 다른 세대는 살아온 시대와 경험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가 한 사회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과 개인 욕구 충족을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노력할 때 세대 간의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의에 기반한다면 각 세대가 다른 세대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세대 안으로 포용하며, 세대 간의 관계 형성과 상호작용, 연계를 강화할 때 세대 간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세대 간 사회통합은 각기 다른 세대의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앞서 밝힌 것처럼, 우리 사회의 세대 간 갈등 정도 수준이 감소한 원인이 세대 간 접촉과 교류가 줄어든 것에 있다면, 우리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통합의 주요 요인인 세대 간의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연계가 약화되어 사회의 분절과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2-4〉는 2023년 사회통합조사에 처음 포함된 차별에 대한 인식 항목 가운데 연령에 의한 차별에 관한 내응을 나타낸다.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연령에 기반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63.5%로 나타난다. 이것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2.5%보다 높다.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5.2%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표 2-4〉 우리 사회의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2023)

(단위:%, 점)

구 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연령에 의한 차별이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연령에 의한 차별이 있다	평균
2023	7.4	29.1	36.5	48.8	14.7	63.5	2.7
연령별 연령 차별에 대한 인식(2023)							
19-29세	6.9	31.6	38.5	46.2	15.3	61.5	2.7
30-39세	7.6	30.2	37.8	49.4	12.9	62.3	2.7
40-49세	6.6	31.7	38.3	47.4	14.2	61.6	2.7
50-59세	7.6	28.3	35.9	50.0	14.2	64.2	2.7
60세 이상	7.8	26.4	34.2	50.0	15.8	65.8	2.7
65세 이상	7.6	25.7	33.3	50.2	16.6	66.8	2.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2).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2023). 본 문항은 2023년 조사에 처음 도입됨.

지금까지 제시된 세대 간의 인식에 대한 몇 가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 사회의 세대 집단은 다른 세대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며,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연령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연령층의 갈등 체감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소통과 교류, 상호관계의 부재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우리 사회 구성원 절반 이상이 체감하는 소통과 교류 부재, 연령에 따른 차별감, 갈등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공통점 발견, 연계, 신뢰, 결속, 연대감 등을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 결국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GNAFCC와 같은 기구가 형성되었다. 인천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단위의 지자체가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정책과 사업을 통해 세대 간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GNAFCC는 모든 연령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 구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책과 사업의 주요 대상이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 현대화, 도시화 된 사회에서 노인층이 다양한 삶의 측면에서 취약점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노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정책이 곧 미래의 나를 위한 정책인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 간의 사회통합은 노

인 세대에 대한 인식개선, 이해,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세대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는 모든 연령 집단, 모든 세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세대 간의 연속성과 공통적 유산의 전승은 모든 세대가 앞선 세대와 뒷세대를 모두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50+세대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간의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은 노인세대와 아동세대라는 연령적 거리가 큰 두 세대에 집중되어 왔다(한지수·박윤정, 2023). 이러한 노력은 두 세대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을 좁히고 유대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노인과 아동 사이에 존재하는 청장년층과 50+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결속하여 세대 간 연속성을 보장할 때 탄탄한 사회통합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세대가 연속된 연령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세대통합에도 연속성이 중요하다.

제2절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

국내·외를 막론하고 50+세대와 청장년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세대 간 이해 증진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GNAFCC가 소개하는 사례나 국내, 인천시의 세대통합 관련 사례는 주로 노인세대와 아동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GNAFCC가 표방하는 'Age-friendly'의 의미를 '노인/고령자 친화'로 이해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많은 세대통합 관련 사업이 노인관련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점, 노인세대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세대가 유아동세대라는 점 역시 사업 대상이 제한되는 이유로 밝혀진 바 있다(한지수·박윤정, 2023).

1. 해외 사례

해외 사례 가운데는 청장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의 멘토링 프로그램(CoGenerate)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 멘토는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은퇴자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50+세대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표2-5〉에서는 50+세대가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표 2-6〉은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안내서와 이벤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표 2-5〉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해외 사례

국가 사례 명	내 용
스웨덴 "Generation at Work"	· 다양한 세대가 노동 시장과 정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세대 간 대화**를 활성화하는 플랫폼 · 세대 간 공통의 목표 설정,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함 · 2021년 500건 이상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가운데 75% 이상이 갈등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표 2-5〉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해외 사례

국가 사례 명	내 용
핀란드 “Lifelong Learning”	· 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기술 및 지식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학습**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 · 핀란드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50+세대 인구는 약 45% · 유럽연합의 50+세대는 평균 20% 정도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보임 · 참여자의 80% 이상이 세대 간 기술격차 감소, 직장 내 갈등 완화를 보고함
캐나다 “Intergenerational Dialogue”	· 다양한 세대가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하는 활동 ·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세계적 네트워크 · **대화를 통한 세대 간 이해 증진** 활동
미국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학교 · 학생들을 존중하며 개인의 재능에 적합한 교육 제고를 목표로 함 · 중장년층의 경험과 지식, 젊은 세대의 역량과 상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 · 입학, 수학 연령 제한 없음 · 효과적인 세대통합 교육을 위해 수행과목을 현실적 주제에 기반하여 구축
스코틀랜드 “Generations Working Together”	·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대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에 주력 · **지역사회, 학교, 일터,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자체, 정부에 제안** · **기업이 세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역량 개발에 노력할 것을 촉구 · 각 세대가 다른 세대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 촉구

자료:1. Connecting Generations(2024). Swedish Dialogue Institute & The Folke Bernadotte Academy. https://www.connecting-generations.org/ (검색일 2024-10-28)
2. Generation at Work.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global-intergenerational-week/country-leads/sweden (검색일 2024-10-24)
3. Generations Working Together.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 (검색일 2024-10-24)
4. Intergenerational Dialoue. https://www.jfsvancouver.ca/events/learning-from-each-other-intergenerational-dialogue-programs/ (검색일 2024-10-24)
5. Lifelong Learning.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lifelong-learning-strategy (검색일 2024-10-24)
6.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https://igschools.org/ (검색일 2024-10-24)

〈표 2-6〉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활동에 유용한 자료

제 목 (발간/개최 연도) 제 작/출 판	사이트(관련/출처)	내용
Connecting Generations (2024) Swedish Dialogue Institute & The Folke Bernadotte Academy (FBA)	https://www.swedenabroad.se/globalassets/ambassader/dialogue-institute/documents/guidance-note-on-intergenerational-dialogue.pdf	·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대 간 대화법 안내 · 세대의 정의, 갈등의 역학, 사회적 이슈, 오래된 문제 해결을 위한 세대 간 대화의 해법 등 소개 · 세대 간 대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단계별 안내 · 본 안내서를 활용한 세대 간 대화 사례 소개
Global Intergenerational Week (2023. 4.24-30 ~) Generations Working Together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global-intergenerational-week	· 세대통합의 중요성과 영향력 교육 및 홍보 · 개인, 가족, 지역사회 안의 사회적 고립, 외로움, 분열을 해소하는데 세대 간 대화가 지니는 영향력 인식 · 세대 간의 대화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됨 · 각국의 인식 개선 활동 사례 소개

2. 국내 사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50+재단)은 50+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50+재단에서도 세대통합 사업의 주된 대상은 노인세대로 보인다. 2021년부터 50+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이음단의 경우 세대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 사업에서 50+세대는 노인세대에게 디지털 기기(주로 핸드폰) 사용법을 교육하는 강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보람일자리의 일부 사업은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교류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표 2-7〉 참조). 선배시민 멘토단의 경우 중장년세대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청년세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이나 진로 관련 멘토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두 세대를 아우르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멘토단의 경우 중장년세대가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회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업의 대상자 연령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많은 대상자가 청장년세대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사

업은 세대 간 교류와 이해 증진 외에도 선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표 2-7〉 서울시 50+재단 보람일자리-지역사회돌봄단

사업대상: 재능과 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서울시 중장년 세대

사업명	대상	활동내용	인원
선배시민 멘토단	청년	자립준비청년 및 1인 가구 청년 대상 일대일 정서지원, 생활지원, 진로 멘토링 등의 활동	130명
한강봉사 인솔리더단	환경	한강 주변 생태환경 회복, 개선활동을 위한 리더단 활동 (일반 자원봉사자 인솔, 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205명
노인인지 케어단	노인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정서활동, 어르신 대상 전문돌봄활동	265명
다문화가족 멘토단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 및 국내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어 회화 수업	40명
행복한 학교밖 선생님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상 정서지원 및 학습지원, 놀이지원 활동	60명
자치구 기반 지역사회돌봄단	아동 노인	인지놀이, 통증테라피 등 재능나눔 정서지원 활동	300명

자료: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24.

제3절 Q방법론

1. 방법론의 특성

Q방법론은 연구참여자의 주관성에 초점을 두었던 윌리엄 스티븐슨(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시작된 이론적, 방법론적인 개념이며 연구기법이다. Q방법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 인식과 가치관을 정량화화여 분석한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특정한 대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신념,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전통적인 양적 조사인 R방법론[1)]에서 객관성은 과학의 기본이 되었으며, 주관성은 외면되었으나, 이러한 경험주의 방법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Q방법론은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하였다. 현상학이나 해석학이 갖는 주관적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해 객관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Q방법론에서는 통합체 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며 요인분석을 활용한다(〈표 2-8〉 참조).

〈표 2-8〉 Q방법론과 질적연구, 양적 연구의 차이점

비교 항목	양적방법론	질적방법론	Q방법론	Q성격
연구의 틀	- 가설의 설정 - 연구자의 조작화 - 조직화된 설문지 사용	- 가설의 발견 - 탄력적인 연구설계 - 조직화가 낮은 설문지	- 귀납, 연역가설 발견 - Q표본의 우연적 작성 - 정도 측정	- 양적이면서 질적임
분석 목적	- 개인간의 변이측정 - 변수간의 인과관계 - 배경적 변수의 일반화 - 환원 개체주의적	- 변이의 묘사 - 변수 간의 관계묘사 - 상황, 전체주의적	- 개인 내의 변인 측정 - 배경적 변수의 참고 - 전체, 상황주의적	- 질적 연구에 가까움
설문 형태	- 연구자의 조작화 - 연구대상자 재량 없음 - 폐쇄형 - 연구자 중립적	- 연구자의 구조화 - 연구대상자 재량 있음 - 개방형 - 연구자 초자연주의적	- Q표본 작성과정이 매우 유연, 비구조화 - 자아참조적 - Q표본 질문형태 폐쇄적	- 양적, 질적 성격을 공유
자료 형태	- 양적 측정 가능 - 비율, 구간, 순위변수	- 상황적 변수 이용 - 다양한 방식 이용	- 정도측정(Ipsative measure) - 양적인 성격	- 양적 성격이 강함
연구 설계 유연성	- 통계적 조건과 전제 - 연구대상자 수동적 - 외부관점에 순응 - 무작위 추출	- 연구 진행에 따라 설계의 조정 가능성 높음 - 보편적 사고에 기초한 작위추출	- Q표본 작성과정은 유연성이 높음 - Q표본에 기초한 주관성을 추출 - 연구대상자의 작위추출	- 양적, 질적인 성격 공존

자료: 김순은(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1) R방법론은 관찰할 수 있으며 계량화(측정)할 수 있는 속성이나 특성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론이다. 반면 Q방법론은 느낌, 의견, 선호, 감정, 이상, 취향 등 측정할 수 없는 변인을 대상으로 삼는다.

Q방법론은 자아의 개념이 중요하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다. 주관적 의미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통합체(Concourse)는 '지식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서로 지식을 전달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뜻한다. 한 문화 안에서 공유하는 인간의 경험은 관점이나 가치, 선호 등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공유되고 전달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 각기 주관적 통합체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Q방법론의 분석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김흥규, 2008). 또한, Q방법론은 개인이 자신의 자아반영, 자아 인식, 그리고 자아 관찰 등을 통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진술하는 형태의 자아 심리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아 심리학에서 자아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일상적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한다고 설명하며(길병옥 외, 2020), 자아를 주관성의 중심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Q방법론은 양자이론과도 연결되어 있다. 물리학자들이 관찰 가능한 것들이나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 양자이론을 사용하는 반면, Q방법론에서는 관찰자들이나 주체를 연구하기 위해 사용된다(Watts & Stenner, 백평구 역, 2014). 이는 세상의 현상과 관찰자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 혹은 현실 세계에 대한 지각이 개인 각자에게 독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김흥규, 2008). 이외에도 Q방법론은 유희이론, 간 행태이론 등 여러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Q방법론은 기본적으로 Q분류의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Q분류간의 상호관련성과 요인 분석을 결합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Q방법론은 응답자가 스스로 진술문을 비교하여 동의 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길병옥 외, 2020). 이것은 Q방법론이 '외부로부터의 설명'을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중요시하는 접근법임을 의미하며, 연구자의 가정이 아니라 응답자의 관점으로 이루어짐을 알려주고 있다(김흥규, 1992). 그러므로 Q방법론에서 사용되는 진술문(Q-Statement)은 모두 자아 참조적(self-referent)인 의견 항목으로 구성되어진다. 자아 참조적인 진술문이란 응답자 자신의 감정을 투사한 의견을 의미하며,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김흥규, 1992).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모든 개념, 관련, 아이디어 등이 인식되고 표현되며 이는 곧 Q방법론의 표본이 되고 분석자료가 된다(심솔비, 2024). 그래서 Q방법론은 현상학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과 유사하다고 생각되기 쉬우나 응답자 간의 상관관계와 요인분석과 같은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이현주, 2021). 일반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대상자들의

답안은 그들의 단편적인 인식만을 알 수 있는 제한점을 갖게 되지만, Q방법론은 주관적이고 다양한 연구대상자들의 인식이나 이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Lundgerg et al., 2020; 심솔비, 2024에서 재인용).

이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Q방법론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Q방법론은 마음의 내적 특성을 다루는 주관성의 과학이다. 둘째, Q방법론은 가설을 검증하는 경험주의적 방법론이 아니라, 가설을 발견해나가는 추론적 방법론이다. 셋째, Q방법론은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특성을 포함하는 상호 보완적인 연구방법론이다. 넷째, Q방법론은 개인 간의 (견해)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의 총체를 설명한다(전재영, 2024). 그러므로, 완성도가 높은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주요한 관점이 표출되고, 그러한 관점들은 질적인 세부사항과 함께 전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Watts & Stenner, 백평구 역, 2014).

2. Q방법론과 R방법론

Q방법론은 요인분석[1)]을 응용한 기법이나 사람들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R방법론은 자극이나 검사물 간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서로간에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김흥규, 2008). Q방법론과 R방법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다. R방법론은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한 객관적 사실을 연구대상으로 하지만, Q방법론은 느낌이나 의견, 선호, 감정, 취향 등이 연구대상이 된다(김흥규, 2008). 즉, Q방법론은 거짓과 진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쁨, 선과 악 등의 주관적인 견해가 연구대상이 된다(김순은, 1999). 둘째, 통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Q방법론에서의 변인은 사람인데 반해, R방법론에서는 측정항목 주로 변인이 된다(백평구, 2015). 셋째, Q방법론은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심층적인 개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나, R 방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인 연구에 사용된다(김순은, 1999). 〈표 2-9〉는 Q방법론과 R방법론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1) 수집된 여러 변수를 유사한 항목끼리 묶어 소수의 요인으로 추출하고 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변수를 파악하는 통계 분석방법

〈표 2-9〉 Q방법론과 R방법론의 차이

내용	Q방법론	R 방법론
가설 생성 방법	가설로 향하는 논리 논리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리
과학 논리	가설 생성	귀납, 연역
속성	주관적 속성	객관적 속성
통계학적 변인	사람	측정항목이나 자극
연구대상	피험자의 주관적 제시 (느낌, 의견, 선호, 이상, 취향 등)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객관적 사실
표본	소수의 대상도 무관	연구의 오차범위를 줄이기 위한 다수의 무작위 표본 추출

자료: 심솔비, (2024).

3 50+ 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의 상호 인식 분석

제1절 세대 별 상호 인식 유형 파악을 위한 Q방법론 적용 과정

제2절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제3절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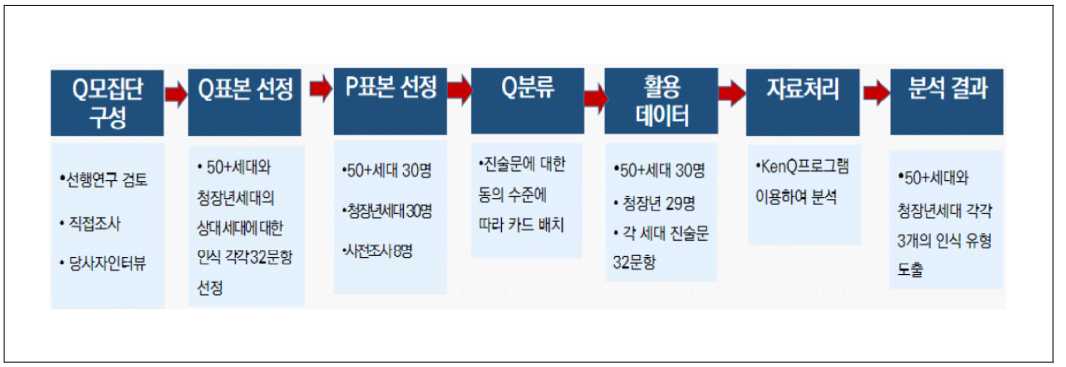
제3장 50+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의 상호 인식 분석

제1절 세대 별 상호 인식 유형 파악을 위한 Q방법론 적용 과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그림 3-1〉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50+세대와 청장년 세대 간의 상호 인식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하고, 무작위로 50+세대 및 청장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상호 간 인식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둘째, 수집된 진술문을 정리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종 진술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P집단 인터뷰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진술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넷째, P표본을 선정하여 Q분류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Q분류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요인분석한 후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림 3-1〉 Q방법론 수행 절차



2. 연구 수행

1) Q모집단 구성

설문 응답자가 모집단이 되는 R방법론의 요인분석과 달리 Q모집단은 주관적인 의식이 모집단의 대상이 된다(진상현, 2006). Q모집단은 연구주제에 대한 진술문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최문경, 신원식, 2019). 본 연구에서는 Q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세대 간 이해라는 주제로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로는 기사, 문헌, 인터뷰 등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반

으로 하여 인터뷰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후, 50대 여성과 남성 각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한편으로는 청장년세대와 50+세대들로부터 직접, 그리고 자유롭게 상호 세대 간의 인식에 대한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술문 샘플을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진술문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Q방법론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50+세대의 인식 뿐 아니라 청장년 세대에 대한 인식도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청장년 세대의 인식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청장년세대에 관한 인식은 총 315개의 진술문을, 50+세대에 관해서는 총 312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2) Q표본 선정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Q방법론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통해 Q모집단(진술문)을 검토하였다. 추출된 진술문을 반복해 읽으며 중복되는 의미의 진술문들이나 의미가 모호한 진술문들은 제거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각 세대 별 32문항씩 총 64문항을 선정하였다. 이 진술문들에 대한 마지막 검토을 위하여 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진술문들은 좀 더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였다. 최종 진술문의 내용은 본 장의 제2절과 제3절에 식별 진술문과 함께 제시되었다

3) P표본 선정

Q방법론에서 P표본이라는 것은 Q표본을 분류하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Q표본 36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분류를 실시하는 대상자들이다. Q방법론에서 사람은 변인이기 때문에 R방법론에 비해 적은 수의 참여자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장년세대 30명, 50+세대 30명을 각각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인천시가 여러 도서를 포함하고 있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흥도 및 강화도에서도 대상자를 포함시켜 가능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영흥도 및 강화도 등 도서지역에서는 지역상인 등을 중심으로 하여 청장년 8명, 50+ 10명이 참여하였고, 내륙지역 거주자들은 사회복지기관에 다니는 직장인을 중심

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장년 11명, 50+ 20명이 참여하였다. P표본 수집 후 분류에 문제가 있었던 청장년세대 1명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는 청장년세대 29명, 50+세대 30명을 P표본으로 선정하였다. P표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우선,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성은 19명(32.2%)이었으며, 여성은 40명(67.8%)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청장년세대가 29명으로 49.2%를 차지하였고, 50+세대가 30명으로 50.8%를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내륙지역 거주자가 41명(69.5%)이었고, 도서지역 거주자가 18명(30.5%)이었다.

〈표 3-1〉 P표본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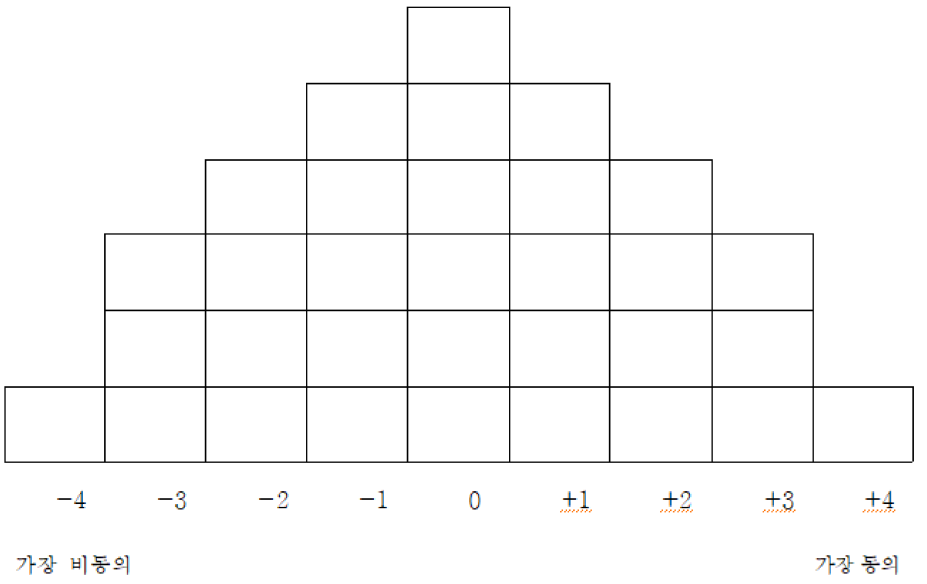
(n=59)

구 분		빈도(%)
성별	남성	19(32.2)
	여성	40(67.8)
연령대	30-40대	29(49.2)
	50-60대	30(50.8)
지역	내륙	41(69.5)
	도서	18(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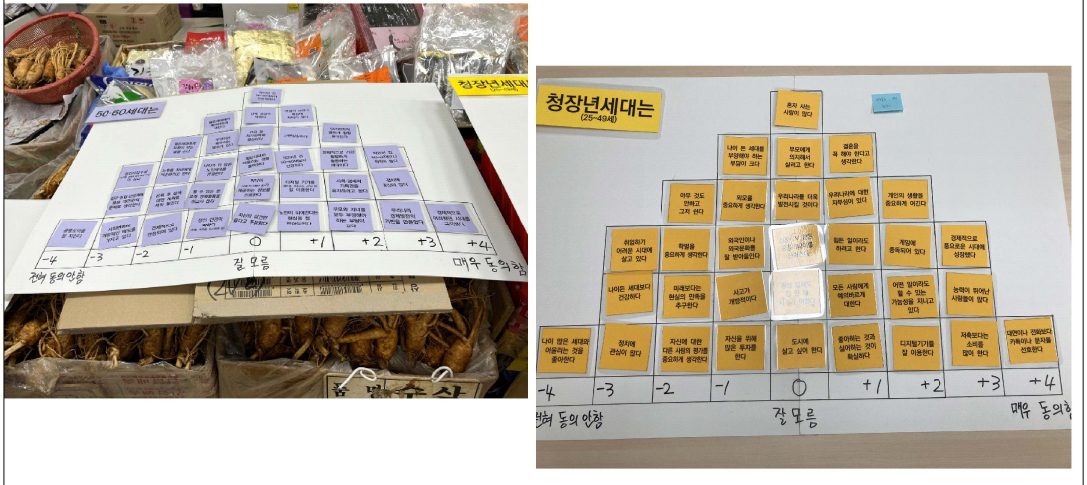
4) Q분류(Q-sorting)

Q표본과 P표본의 선정이 끝나면 Q분류(Q-sorting)를 수행한다. Q분류란 P표본에게 Q표본이 적힌 카드를 제공하면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중요한 순서로 분석틀에 배치하는 과정이다(김흥규, 2008). 분포 틀에 넣을 수 있는 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P표본이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에서부터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을 강제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이 Q분류의 특징이다(전미경, 구인혁, 2024). 분포 틀은 보통 정규분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Brown(1980)에 의하면, Q표본이 40개 이하일 경우에는 9점 척도(-4에서 +4), 40-60개의 Q표본일 경우 11점 척도(-5에서 +5), 그리고 60개 이상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Q표본의 경우에는 13점 척도(-6에서 +6)가 적절하다. 본 연구에서는 Q표본 문항이 각 32문항이므로 가장 동의함을 +4, 가장 비동의함을 -4로 하는 9점 척도를 선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3-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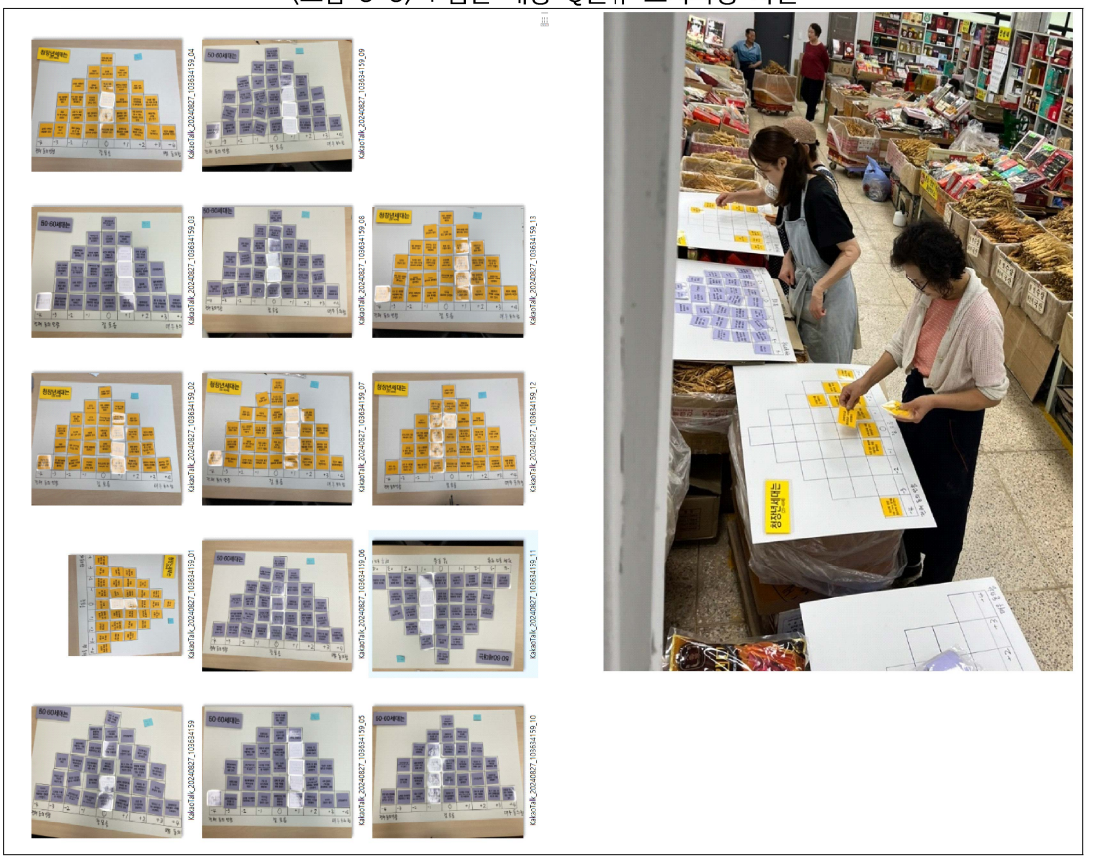
〈그림 3-2〉 P집단 대상 Q분류표



〈그림 3-3〉 P집단 대상 Q분류 조사과정 사진



〈그림 3-3〉 P집단 대상 Q분류 조사과정 사진



5) 자료분석

Q분류를 수행 한 데이터는 KenQ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요인분석은 P 표본을 축으로 하는 주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1] 방법을 사용하였고, 변량을 극대화하는 직교회전(orthogonal rotation)[2]의 한 종류인 배리맥스(varimax)[3]변환을 활용하여 요인회전을 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값(Eigenvalues)[4]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리 도표를 확인

1) 요인분석 시행 전에 어떤 변수들끼리 묶어야 한다는 전제 없이 변수를 압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분석법. 기존에 존재하는 요인모형이 없는 상태에서 유형을 도출하는데 사용.
2)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상관계수=0) 가정하는 모형을 도출하는데 사용되는 회전 방식.
3) 요인회전 시 분산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요인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 추출할 요인의 수(유형의 수)를 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값. 아이겐값이 크다는 것은 변수들의 분산이 잘 설명된다는 의미이다. 아이겐값은 1 이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하였다. 그 후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유형 간 P표본 수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유의미하지 않은 Q분류가 적은 요인의 개수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수는 3개로 결정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특성을 분석하여 해석하고 유형을 명명하였다. 이후 각 진술문의 Q값은 표준화하여(Z-score)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표준화 점수의 절대값이 1 이상인 경우라도 해당 진술문이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유형 도출에서 제외하였다. 공통적인 진술문은 해당 세대가 상대 세대에 대하여 가지는 전반적 인식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제2절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1. 요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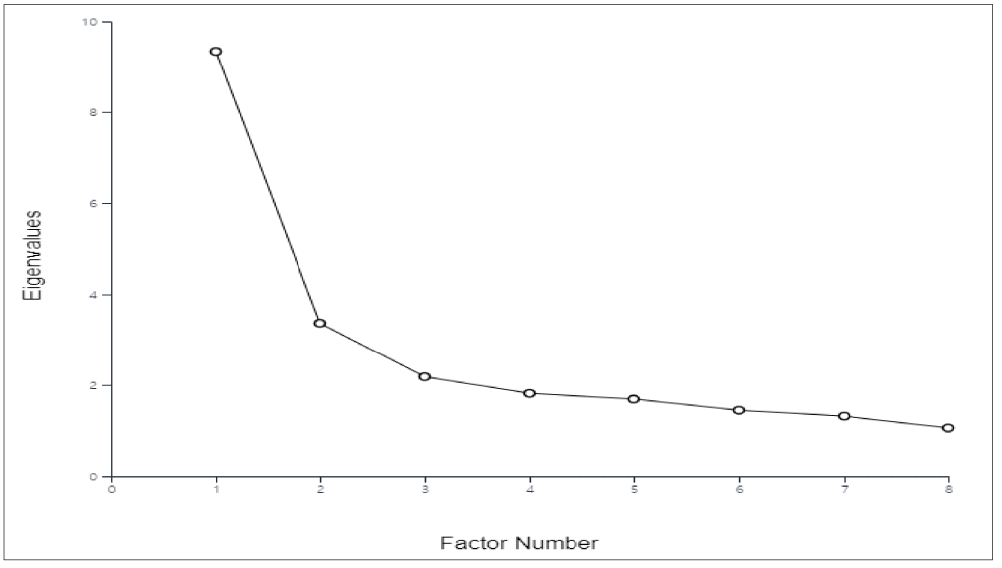
1) 요인별 아이겐값(Eigen values)과 변량

본 연구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청장년 세대의 50+세대에 대한 인식은 최초의 적재치로 8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아이겐 값(Eigen values)은 〈표 3-2〉에 스크리도표[1]는 〈그림 3-4〉에 제시되었다.

〈표 3-2〉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요인별 적재치

요인	1	2	3	4	5	6	7	8
아이겐값	9.3376	3.3646	2.1794	1.8144	1.6891	1.4444	1.3153	1.056
설명변량(%)	32	12	8	6	6	5	5	4
누적설명 변량(%)	32	44	52	58	64	69	74	78

〈그림 3-4〉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스크리도표



1) 적절한 요인 수를 찾기 위하여 아이겐값의 감소폭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통 낙차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수를 요인의 개수로 정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값 1.0 이상의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직교회전(varimax ratation)을 하였다. 누적분산값[1], 스크리도표 등의 결과와 함께 직교회전을 시행하였다. 이후 유의미하지 않은 Q분류가 가장 적은 요인의 수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장년세대의 50+세대에 대한 인식 유형은 3개로 유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제1유형에 대한 아이겐값은 9.3376, 제2유형에서는 3.3646, 제3유형에서는 2.1794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32%, 제2유형이 12%, 제3유형이 8%로 나타났으며, 총 누적설명량은 52%였다(〈표 3-3〉 참조).

〈표 3-3〉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별 아이겐값 및 설명량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값	9.3376	3.3646	2.1794
설명변량(%)	32	12	8
누적 설명변량(%)	32	44	52

2) 유형 간의 상관관계

유형 간의 유사성을 살펴보았는데 유형 1과 유형 3의 상관관계가 0.5이상인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바람직한 R방법론과는 달리, Q방법론에서는 반드시 두 유형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식별문항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유형을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을 확정하였다(〈표 3-4〉 참조).

〈표 3-4〉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간의 상관관계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	0.348	0.5961
유형 2	0.348	1	0.3177
유형 3	0.5961	0.3177	1

1) Watts와 Stenner(2012)누적설명변량(누적분산값)이 35-40% 이상일 경우, 요인결정의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Watts & Stenner, 백평구 역, 2014).

3)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

P표본 29명 중 P8[1], P11, P21 등 3명이 유의미한 요인 적재치(p〈0.05)를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청장년 세대에서는 최종적으로 26명을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26명 중 유형 1에는 10명, 유형 2에는 7명, 그리고 유형 3에는 9명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이 분류된 P표본은 요인 가중치를 갖게 되는데, 요인 가중치가 높은 P표본은 자신이 속한 요인에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김흥규, 2008). 각 유형에 해당하는 P표본의 요인 가중치는 〈표 3-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5〉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

유형구분	P표본	가중치	지역
유형 1 (10명)	10	10	내륙지역
	24	9.24857	내륙지역
	6	6.21571	도서지역
	28	5.75083	내륙지역
	9	5.11855	내륙지역
	20	4.69173	내륙지역
	13	4.64492	내륙지역
	14	4.2102	내륙지역
	25	3.83851	내륙지역
	4	3.35583	도서지역
유형 2 (7명)	12	7.0278	내륙지역
	23	5.41021	내륙지역
	3	4.93196	도서지역
	27	4.56449	내륙지역
	22	4.2827	내륙지역
	1	3.74966	도서지역
	16	3.13508	내륙지역
유형 3 (9명)	2	6.6916	도서지역
	19	5.83217	내륙지역
	7	5.79355	도서지역
	17	4.67162	내륙지역
	29	3.91918	내륙지역
	5	3.85683	도서지역
	15	3.82811	내륙지역
	18	3.74206	내륙지역
	26	3.7055	내륙지역

1) P다음에 붙은 숫자는 응답자 번호를 의미한다.

2. 전반적 인식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과 관련하여, Q요인분석을 통해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50+세대에 대한 진술문 32개 가운데,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였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3개의 유형에서는 4개(4, 7, 21, 26번)의 진술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이 일치항목(Consensus Statements)은 모든 유형에서 비슷한 점수를 보이는 진술문으로, 유형에 상관없이 응답자(P표본) 대부분이 동의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청장년 세대는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였고, 더 나이 든 세대를 공경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고, 인간관계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3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진술문은 〈표 3-6〉에 제시하였다.

〈표 3-6〉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3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1유형		2유형		3유형	
		Q점수	Z[1]	Q점수	Z	Q점수	Z
4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극복했다	3	1.47	3	1.30	2	1.06
7	나이가 더 많은 세대를 공경한다	1	0.61	1	0.52	1	0.86
21	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0	-0.12	0	0.01	0	-0.05
26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1	0.30	-1	-0.05	0	-0.14

1) Z-score: -4점부터 4점으로 구성된 Q점수의 분포를 표준화한 점수.

3. 인식 유형

1) 제 1 유형: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세대 변화의 중간자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1유형은 아이겐값이 9.3376이고, 설명량은 32%를 차지한다. 50+세대에 대한 인식 제1유형에는 청장년세대 P표본 중 10명이 포함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의 인식 제1유형의 특성은 P표본들의 진술문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표 3-7〉 참조). 제1유형의 식별 진술문은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Q16, Z=1.62),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Q4, Z=1.47), '정치에 관심이 많다.'(Q32, Z=1.43)로 나타났다. 진술문은 50+세대가 사회의 중심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Q28, Z=-1.32),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Q5, Z=-1.63), '성인지감수성이 높다.'(Q18, Z=-1.83) 등의 진술문에는 강하게 비동의하여 50+세대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유형은 50+세대가 사회, 경제, 정치 등 전체적으로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도덕을 잘 지키지 않고, 성인지감수성이 높지 않다고 느껴 도덕적인 소양은 부족하다고 여긴다.

〈표 3-7〉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 내용	Z-score
Q1	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0.1
Q2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0.04
Q3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0.17
Q4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47
Q5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1.63
Q6	근면성실하다	+0.86
Q7	나이가 더 많은 노인세대를 공경한다	+0.61
Q8	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1.30
Q9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0.95

〈표 3-7〉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 내용	Z-score
Q1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0.76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0.19
Q12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0.55
Q13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0.12
Q14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60
Q15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35
Q16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62
Q17	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98
Q18	성 인지 감수성이 높다(*)	-1.83
Q19	신체건강이 약하다	-0.21
Q20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1.36
Q21	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0.12
Q22	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1.13
Q23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0.46
Q24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0.28
Q25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0.26
Q26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0.3
Q27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0.91
Q28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32
Q29	젊은 세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59
Q30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0.74
Q31	정신건강이 약하다	-1.05
Q32	정치에 관심이 많다	+1.43

1) (*) 표시는 식별 문항을 의미함. 이하 동일.
2) Q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문항 번호를 의미함.

〈그림 3-5〉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1유형문항

-4	-3	-2	-1	0	1	2	3	4
18.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28.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9.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11. 디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25.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1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20.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14.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6.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5.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7.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9.신체건강이 약하다	1.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7.나이가 더 많은 노인세대를 공경한다	22.약 20년 전 50-60세대보다 학력이 높다	4.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5.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31.정신건강이 약하다	12.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2.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23.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27.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32.정치에 관심이 많다	
		8.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29.젊은 세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13.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26.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6.근면성실하다		
			30.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1.약 20년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24.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3.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

2) 제 2 유형: 신뢰할만한 경제활동의 주역

제2유형은 아이겐값이 3.3646이고, 설명량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P표본 중에서는 7명이 포함되어 가장 적은 대상자로 이루어져 있다. 제2유형의 청장년 세대들은 50+ 세대가 경제활동의 주역이며, 든든한 어른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Q3, Z=1.63),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Q4, Z=1.3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Q10, Z=1.26),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Q28, Z=1.07) 등에는 동의를 하였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Q27, Z=-1.30), '신체건강이 약하다.'(Q19, Z=-1.34), '정신건강이 약하다.'(Q31, Z=-2.03),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Q15, Z=-1.54),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Q9, Z=-2.42) 등의 진술문에는 비동의하였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은 〈표 3-8〉과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	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0.99
Q2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0.53
Q3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다	+1.63
Q4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30
Q5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0.46
Q6	근면 성실하다	+0.50
Q7	나이가 더 많은 노인 세대를 공경한다	+0.52
Q8	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0.56
Q9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2.42
Q1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26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0.03

〈표 3-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2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0.1
Q13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19
Q14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0.93
Q15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54
Q16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0.38
Q17	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44
Q18	성 인지 감수성이 높다	-0.74
Q19	신체 건강이 약하다	-1.34
Q20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0.83
Q21	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0.01
Q22	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높다	+0.33
Q23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0.65
Q24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0.87
Q25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0.31
Q26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0.05
Q27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1.3
Q28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07
Q29	젊은 세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14
Q30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0.36
Q31	정신건강이 약하다	-2.03
Q32	정치에 관심이 많다	+0.61

〈그림 3-6〉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2유형문항

-4	-3	-2	-1	0	1	2	3	4
9.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19.신체건강이 약하다	23.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26.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17.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2.정치에 관심이 많다	1.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4.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3.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15.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8.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29.젊은 세대에게 예의바르게 대한다	22.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8.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14.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0.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31.정신건강이 약하다	13.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30.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5.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7.나이가 더 많은 노인세대를 공경한다	24.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28.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27.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16.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2.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6.근면성실하다	20.약 20년 전 50-60세대보다 건강하다		
			2.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21.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5.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11.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

3) 제 3 유형: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대착오자

제3유형은 아이겐값이 2.1794이고, 설명량이 8%를 차지하고 있으며, P표본 중 9명이 포함되었다. 제 3 유형은 50+ 세대가 성실하고 경제활동을 많이 하지만 열의가 없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취약한 전형적인 중년의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진술문을 살펴보면,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Q10, Z=1.77), '근면성실하다.'(Q6, Z=1.41),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Q16, Z=1.39),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Q13, Z=1.24), '정치에 관심이 많다.'(Q32, Z=1.19),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Q23, Z=1.18),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Q24, Z=1.15) 등에 동의하였다. 비동의 한 진술문에는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Q9, Z=-1.07),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Q30, Z=-1.20), '신체건강이 약하다.'(Q19, Z= -1.54),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Q12, Z=-1.67),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한다.'(Q11, Z=-1.97) 등으로 나타났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은 〈표 3-9〉와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표 3-9〉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	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0.06
Q2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0.19
Q3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있다	+0.40
Q4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06
Q5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0.68
Q6	근면 성실하다(*)	+1.41
Q7	나이가 더 많은 노인 세대를 공경한다	+0.85
Q8	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0.88
Q9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1.07
Q10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77

〈표 3-9〉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97
Q12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1.67
Q13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24
Q14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0.01
Q15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0.41
Q16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39
Q17	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0.93
Q18	성 인지 감수성이 높다	-0.30
Q19	신체 건강이 약하다	-1.54
Q20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0.10
Q21	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0.05
Q22	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0.52
Q23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1.18
Q24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1.15
Q25	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0.90
Q26	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0.14
Q27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0.41
Q28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0.29
Q29	젊은 세대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79
Q30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0
Q31	정신건강이 약하다	-0.56
Q32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9

〈그림 3-7〉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3유형문항

-4	-3	-2	-1	0	1	2	3	4
11.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30.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8.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18.성인지 감수성이 높다	2.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대이다	7.나이가 더 많은 노인세대를 공경한다	32.정치에 관심이 많다	6.근면성실하다	10.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9.신체건강이 약하다	25.은퇴 후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았다	15.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20.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22.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23.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16.산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2.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17.사회변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1.정신건강이 약하다	14.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27.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24.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13.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9.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5.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21.약 20년 전 50-60대보다 진보적이다	3.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4.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29.젊은 세대에게 예의바르게 대한다	1.건강 등 자기관리에 열심이다	28.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26.인간관계의 범위가 점점 줄어든다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

4) 소결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 왔음을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면이 있으나 과거의 50+세대보다는 이런 특성이 줄어들었다고 인식한다. 반면,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여러 측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다.

50+세대에 대한 인식 제1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급변하는 세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들이 보는 50+세대는 과거 보다는 학력이 높고 신체·정신 건강 역시 좋은 편이며 개인이 경험하는 불행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며 자신이 노인이 되어간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나이 든 부모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중간 세대로서 경험하는 부담이 된다. 제1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과거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귀감이 되는 언행을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50+세대가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Q5), 성인지감수성이 높다(Q18)는 진술문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제1유형의 청장년세대는 50+세대와 같은 삶의 모습을 답습하고 싶어하지 않는다(Q2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은 50+세대에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의욕을 가지고 있고 젊은세대가 모범으로 삼을만한 삶을 사는 것으로 인식한다. 또한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미디어 등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더불어 50+세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노후를 계획하고 있다고 여긴다. 청장년세대가 보기에 50+세대는 신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보다는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한다. 50+세대에 대한 인식 제2유형에 속하는 진술문 가운데 정신건강이 약하다(Q31)에 대한 비동의 정도가 가장 높다(Z=-2.03). 이점은 해당 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가 50+세대의 강한 정신력을 본받고 싶어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은 설명량이 8%에 불과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유형이 50+세대의 보수성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3유형은 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는 점(Q10)을 50+세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Q4) 근면 성실함(Q6),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수동적 자세(Q13), 성별에 따른 특성 차이(Q23)는 50+세대가 과거 살아온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더욱이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하지 못함(Q11)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지가 약하며(Q12) 젊은세대와 어울리기를 좋아하지 않는(Q30) 점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한다. 제3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50+세대의 사회·경제적 기득권 유지 노력(Q16)과 정치적 관심(Q32) 역시 미래를 향한 변화나 도전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머무르려는 태도로 본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은 낮은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9명의 참여자가 포함된다. 이것은 청장년세대가 과거 지향성을 50+세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인식 저변에 50+세대의 보수성이 깔려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8〉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세 가지 유형과 구성 진술문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제1유형-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세대 변화의 중간자		-제2유형- 신뢰할만한 경제활동의 주역		-제3유형-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대착오자	
진술문	표준 점수	진술문	표준 점수	진술문	표준 점수
사회, 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1.62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1.63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77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1.59	정치에 관심이 많다	1.43	근면성실하다	1.41
정치에 관심이 많다	1.43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30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24
약 20년 전 50-60대보다 건강하다	1.36	될 수 있는 한 오래 경제활동을 하고자 한다	1.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9
약 20년 전 50-60대보다 학력이 높다	1.13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07	여성과 남성의 특성에 차이가 있다	1.17
정신건강이 약하다	-1.05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	-1.19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만들었다	1.15
노인이 되어간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인다	-1.30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한다	-1.30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를 극복했다(*)	1.06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산다	-1.32	신체건강이 약하다	-1.34	젊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0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35	빈곤, 실업, 산업재해 등을 개인만의 문제로 생각한다	-1.54	신체건강이 약하다	-1.54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1.62	정신건강이 약하다	-2.03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	-1.67
성인지감수성이 높다	-1.82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한다	-2.42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한다	-1.97

주1)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별 진술문은 p값(유의수준)이 0.05 미만이면서 표준 점수(Z-score)가 1 이상이거나 -1이하인 경우만을 포함하며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주2) (*) 표시는 전체 유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진술문 가운데 유형 분류에 사용된 진술문을 의미한다
주3) 제1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7〉과 〈그림 3-5〉에 제시되어 있다.
주4) 제2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8〉과 〈그림 3-6〉에 제시되어 있다.
주5) 제3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9〉와 〈그림 3-7〉에 제시되어 있다.

Q분석에 사용된 청장년세대 참여자는 모두 29명으로 그 가운데 7명은 영흥도와 강화도, 즉 도서지역 거주자이다. 나머지 22명은 인천시의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 안배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인식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체 청장년세대 참여자 가운데 각 유형에 속하는 도서/내륙지역 참여자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R방법과 달리 Q방법론에서는 정량적 분석 결과를 보고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통계적 유의미성이나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으로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50+세대에 대한 인식 제1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모두 10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명은 인천시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2명만이 도서지역 거주자이다. 이것은 연구에 참여한 도서지역 청장년세대 가운데 약 28.5%가 제1유형에 속함을 의미한다. 동시에 내륙지역 청장년세대의 약 36.4%가 해당 유형에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50+세대를 도덕적 민감성이 낮은 세대 변화의 중간자로 인식하는 청장년세대는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7.9%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2유형에는 7명의 참여자가 속한다. 제2유형에 속하는 도서지역 거주 청장년세대는 전체 도서지역 참여자 가운데 약 28.5%에 해당하는 2명이었다. 내륙지역 거주 참여자 22명 가운데 약 22.7%에 해당하는 5명이 제2유형에 포함된다. 이에 따르면 내륙지역에 거주하는 청장년세대보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청장년세대가 50+세대의 경제적 성취, 독립 생활에의 의지 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도서지역 거주자 가운데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제3유형에 참여자는 3명으로 전체 도서지역 참여자의 약 42.9%에 해당한다. 내륙지역 청장년세대 거주자 22명 가운데 약 27.3%인 6명이 제3유형에 속한다. 이에 따르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청장년세대가 50+세대에 대하여 더 보수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50+세대에 대하여 가장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제2유형에서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청장년세대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Q방법론에서는 특정 유형에 속하는 P표본의 수나 비율을 통계적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도서지역 청장년세대가 50+세대에 대하여 상반된 인식을 보인다는 것은 향후 인천시에서 수행할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인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를 제외하고는 도

서지역 거주자를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는 경우가 적다. 본 조사에서는 도서·내륙지역 청장년세대의 인식 차이, 도서지역 청장년세대 인식의 상반성 등이 드러났다. 이것은 앞으로 시행될 시정 관련 연구가 지역 특성에 따른 참여자 안배에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제3절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1. 요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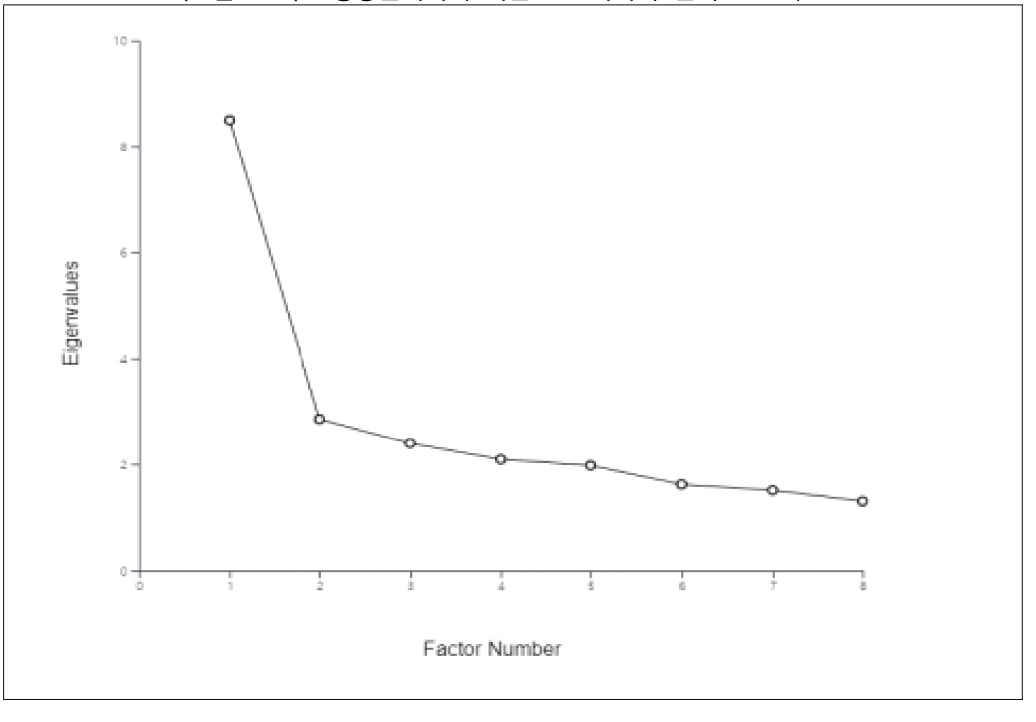
1) 요인별 아이겐값(Eigen values)과 스크리 도표

Q분류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 청장년 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은 최초의 적재치로 8개의 요인이 확인되었다. 아이겐 값(Eigen values)은 〈표 3-10〉에, 스크리도표는 〈그림 3-9〉에 제시되었다.

〈표 3-10〉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요인 별 적재치

요인	1	2	3	4	5	6	7	8
아이겐값	8.4943	2.8563	2.395	2.0925	1.9762	1.6202	1.5105	1.3039
설명변량(%)	28	10	8	7	7	5	5	4
누적 설명변량(%)	28	38	46	53	60	65	70	74

〈그림 3-9〉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스크리도표



앞에서 실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최초 요인 별 직재치와 함께 스크리 검사를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가장 이상적인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아이겐값 1.0 이상의 요인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직교회전한 결과, 유의미한지 않은 Q분류가 가장 적은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유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어졌다. 제1유형에 대한 아이겐값은 8.4943, 제2유형에서는 2.8563, 제3유형에서는 2.395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 설명력은 제1유형이 28%, 제2유형이 10%, 제3유형이 8%로 나타났으며, 총 누적설명량은 46%였다(〈표 3-11〉 참조).

〈표 3-11〉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별 아이겐값 및 설명량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값	8.4943	2.8563	2.395
설명변량(%)	28	10	8
누적 설명변량(%)	28	38	46

2) 유형간의 상관관계

Q방법론에서 유형 간의 상관계수가 높을 경우, 유형 간의 유사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여, 요인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김순은, 2007). 본 연구에서 3개 유형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0.5 이하로 나타나 서로 유사성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였다(〈표 3-12〉 참조).

〈표 3-12〉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간의 상관관계

구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1	1	0.468	0.3135
유형 2	0.468	1	0.2178
유형 3	0.3135	0.2178	1

3)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Factor weight)

P표본 중 요인 적재치(p<0.05)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모든 표본 분석이 가능하였다. 전체 30명의 P표본 중 1유형에는 13명, 2유형에는 11명, 3유형에는 6명이 분포되었다. 이와 같이 분류된 P표본은 요인 가중치를 갖게 되는데, 요인 가중치가 높은 P표본은 자신이 속한 요인에서 그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김흥규, 2008). <표 3-13>에는 각 유형별 P표본의 가중치가 높은 순서로 나타나 있다.

<표 3-13>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별 P표본의 요인 가중치

유형구분	P표본	가중치	지역
유형 1 (13명)	24	10	내륙지역
	26	10	내륙지역
	11	6.34513	내륙지역
	12	4.86286	내륙지역
	27	4.78308	내륙지역
	22	4.43573	내륙지역
	2	4.13598	도서지역
	17	4.09882	내륙지역
	9	3.88631	도서지역
	30	3.69576	내륙지역
	15	3.65094	내륙지역
	20	1.70472	내륙지역
	25	1.67957	내륙지역
유형 2 (11명)	19	6.26978	내륙지역
	3	4.57707	도서지역
	13	3.8685	내륙지역
	6	3.85214	도서지역
	14	3.35094	내륙지역
	8	3.32476	도서지역
	4	3.25541	도서지역
	1	3.12803	도서지역
	28	3.02252	내륙지역
	18	2.5828	내륙지역
	16	2.22103	내륙지역
유형 3 (6명)	5	5.61758	도서지역
	23	3.46763	내륙지역
	21	3.16523	내륙지역
	7	-2.54523	도서지역
	10	2.2323	도서지역
	29	-2.02211	내륙지역

2. 전반적 인식

Q요인분석을 통해 3가지 유형을 도출하였다. 50+세대가 청장년세대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진술문 32개 중 강한 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과 강한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Z-score≤-1.0)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3개의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들은 〈표 3-14〉에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50+세대는 일반적으로 청장년 세대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성장한 세대이고,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결혼을 선택으로 여기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없으며 항상 예의가 바른 것은 아니고, 공공매체를 잘 믿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3개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합의된 양상을 나타내는 진술문

번호	진술문 내용	1유형		2유형		3유형	
		Q점수	Z	Q점수	Z	Q점수	Z
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1.46	-3	-1.24	-2	-1.07
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2	-0.20	-2	-1.11	-2	-0.91
12	모든 사람에게 예의가 바르게 대한다	-1	-0.43	-1	-0.42	-1	-0.84
16	신문이나 TV 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1	-0.55	-1	-0.40	0	0.02
19	외국인이나 외국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0	0.16	1	0.23	1	0.30
13	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0	0.04	1	0.47	0	0.16
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 성장했다	1	0.50	0	0.18	0	0.13
20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	0.93	1	0.72	1	0.64

3. 인식 유형

1) 제1유형: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제1유형은 아이겐값이 8.4943이고, 설명량이 28%를 차지하고 있다. P표본 중 13명 포함되어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청장년 세대들이 취업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려운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세대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고,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P표본들이 강한 동의 및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표 3-15〉와 〈그림 3-10〉 참조). 먼저,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Q29, Z=1.87),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Q28, Z=1.14) 등의 진술문을 통해 청장년 세대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쉰다.'(Q17, Z=-1.33)라는 진술문과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Q32, Z=-1.83) 진술문에 동의하지 않아 사회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Q1, Z=1.36),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Q27, Z=1.25),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Q14, Z=-1.15), '나이 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Q7, Z=-1.24),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Q23, Z=-1.25),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Q3, Z=-1.46) 등의 진술문을 통해서는 개인적 성향이 강한 세대라고 인식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5〉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1.36
Q2	게임에 중독되어있다(*)	-1.22
Q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6
Q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0.50
Q5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0.19
Q6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0.28
Q7	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4
Q8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0.82
Q9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27
Q10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0.15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55
Q12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43
Q13	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0.04
Q14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5
Q15	사고가 개방적이다	+0.53
Q16	신문, TV 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0.55
Q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1.33

〈표 3-15〉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1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8	어떤 일이 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0.33
Q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0.16
Q20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93
Q21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0.37
Q22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0.1
Q23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25
Q24	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0.09
Q25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0.71
Q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1.2
Q27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25
Q28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1.14
Q29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87
Q30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02
Q31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0.83
Q32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1.83

〈그림 3-10〉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1유형 문항

-4	-3	-2	-1	0	1	2	3	4
32.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23.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4.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5.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25.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27.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1.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29.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6.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0.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15.사고가 개방적이다	28.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1.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3.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12.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22.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4.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20.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9.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7.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6.신문, TV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13.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21.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8.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31.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30.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8.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24.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 유형 식별에 사용할 수 없는 진술문

2) 제2유형: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자

제2유형은 아이겐값이 2.8563이고, 설명량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P표본 중 11명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특히 청장년 세대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매우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거의 나이 든 세대와 분리가 된 듯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과는 다르게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표 3-16〉에 따르면 P표본들이 강한 동의 및 비동의를 보인 진술문에서 2유형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먼저,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Q1, Z=1.88),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Q9, Z=1.79),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Q24, Z=1.18),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Q31, Z=1.01), '정치에 관심이 많다.'(Q26, Z=-1.11), '결혼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한다.'(Q3, Z=-1.24),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Q7, Z=-2.29) 등 대부분의 진술문에서 청장년 세대가 개인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 참조). 제2유형에서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Q29, Z=-1.54)라는 진술문에 강하게 비동의를 하여, 제1유형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16〉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1.88
Q2	게임에 중독되어있다	-0.23
Q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4
Q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0.18
Q5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0.77
Q6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19
Q7	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29
Q8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0.19
Q9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79

〈표 3-16〉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2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 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0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0.87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48
Q12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42
Q13	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0.47
Q14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0.18
Q15	사고가 개방적이다	+1.33
Q16	신문, TV 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0.4
Q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1.15
Q18	어떤 일이 라도 할 수 있는가 능선을 지니고 있다	-0.32
Q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0.23
Q20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72
Q21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0.12
Q22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0.09
Q23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34
Q24	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1.18
Q25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0.36
Q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1
Q27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0.89
Q28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0.77
Q29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54
Q30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25
Q31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1.01
Q32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0.55

〈그림 3-11〉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2유형 문항

-4	-3	-2	-1	0	1	2	3	4
7.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6.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5.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18.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4.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20.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4.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9.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3.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8.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25.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21.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13.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31.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11.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29.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16.신문, TV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22.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23.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27.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5.사고가 개방적이다	
		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12.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14.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10.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32.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2.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8.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30.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

3) 제3유형: 의존적인 이기주의자

제 3 유형의 아이겐값은 2.395로 나타났으며, 설명변량은 8%를 차지하였다. 이 유형의 50+세대는 청장년층이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이기주의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청장년세대에 대한 이해는 〈표 3-17〉과 〈그림 3-12〉의 진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Q2, Z=1.99),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Q10, Z=1.71), 부모에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Q14, Z=1.12), 결혼을 꼭 해야한다고 생각한다.'(Q3, Z=-1.07),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Q6, Z=-1.09),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Q23, Z=-1.09),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Q22, Z=-1.51),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Q32, Z=-2.38) 등의 진술문에 대한 동의/비동의 양상을 보면 제3유형이 청장년세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7〉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0.86
Q2	게임에 중독되어있다(*)	+1.99
Q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7
Q4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0.13
Q5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1.07
Q6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09
Q7	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0.16
Q8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0.34
Q9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0.91
Q10	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1.71
Q11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0.51
Q12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0.84

〈표 3-17〉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3유형의 진술문의 표준점수(Z-score)와 식별문항

번호	진술문내용	Z-score
Q13	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0.16
Q14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2
Q15	시고가 개방적이다	+0.72
Q16	신문, TV 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0.02
Q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1
Q18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0.44
Q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0.3
Q20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0.64
Q21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0.83
Q22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1.51
Q23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09
Q24	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0.3
Q25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1.02
Q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0.91
Q27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0
Q28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0.11
Q29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20
Q30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0.67
Q31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0.91
Q32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2.38

〈그림 3-12〉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의 타 유형과 동의 혹은 식별되는 제3유형문항

-4	-3	-2	-1	0	1	2	3	4
32.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6.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26. 정치에 관심이 많다	24.자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다	13.미래보다는 현실의 만족을 추구한다	15.사고가 개방적이다	5.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10.도시에 살고 싶어 한다	2.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23.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31.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8.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4.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성장했다	30.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7.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쉰다	29.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22.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25.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18.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16.신문, TV같은 공공미디어를 신뢰한다	20.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9.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4.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3.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1.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27.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1.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12.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대한다	28.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19. 외국인이나 외국 문화를 잘 받아들인다			
				7.나이 많은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효한 식별 진술문

모든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술문

유의하지 않은 진술문

4) 소결

50+세대가 인식하는 청장년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50+세대는 개인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장년세대가 대면이나 전화와 같은 실제적 관계 형성보다는 카톡, 문자, SNS와 같은 비접촉형 교류를 선호한다고 인식한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며 동시에 오랜 시간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강하게 발현될 경우 다른 세대와 단절된 듯한 인상을 준다. 시간이나 재정적 자원 역시 스스로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수고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처럼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안에서 개별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1유형은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혼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청장년세대의 모습에 대한 연민을 반영하고 있다. 50+세대가 보기에 청장년세대는 경제활동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고(Q28) 자산 축적이나 경제적 안정 역시 어려운(Q29) 시대에 살고 있다. 제1유형에 속하는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부모에 의지하거나(Q14) 다른 나이 많은 세대와의 교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Q7) 무기력하거나(Q17) 중독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Q2) 본다. 반면 굳이 힘든 일을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Q32) 여긴다.이들이 보기에 청장년세대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Q11)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한다(Q9). 제1유형의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 가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Q23)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Q27) 하는 성향이 높다고 생각한다. 결혼이나 정치에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것은(Q3, Q26)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장년세대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2유형 역시 청장년세대의 개인 중심적 삶의 방식(Q1)을 가장 큰 특징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제2유형은 제1유형과 달리 청장년세대가 처한 현실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여긴다. 제2유형에 속하는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사적 영역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대면 소통을 선호하고(Q9) 자신을 위해 경제적·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Q24)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기에(Q15) 결혼하지 않고(Q3)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하다고(Q31) 생각한다. 50+세대가 볼 때 청장년세대는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와는 어울리려고 하지 않고(Q7)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별로 가지

지 않는다(Q26). 제2유형의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아무 노력없이 산다고 생각하지 않으며(Q17)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Q29) 디지털기기 이용에 익숙한 반면(Q11)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지는 않다고(Q6) 생각한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3유형은 청장년세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회피하거나(Q2) 타인에게 의존하려는(Q14) 경향이 높다고 인식한다. 50+세대가 볼 때 현재의 청장년세대가 처한 경제적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으며(Q29) 도시의 삶을 선호하고(Q10) 힘들지 않은 일을 원하는(Q32) 반면, 소비 수준이 꼭 높다고는 여기지 않는다(Q25). 제3유형의 50+세대는 청장년세대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쓰지 않고(Q23) 결혼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지만(Q3) 여전히 나이든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을 안고 있다고(Q5) 본다.

〈그림 3-13〉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유형

-제1유형-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진술문	표준점수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1.87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55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1.36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27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확실하다	1.25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1.14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5
정치에 관심이 많다(*)	-1.20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1.22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1.24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25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쉰다	-1.33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6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1.83

-제2유형-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자

진술문	표준점수
개인의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1.88
대면이나 전화보다 카톡이나 문자를 선호한다	1.79
디지털기기를 잘 이용한다	1.48
사고가 개방적이다	1.32
자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한다	1.18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1.01
정치에 관심이 많다(*)	-1.11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쉰다	-1.15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19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4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1.54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29

-제3유형-
의존적인 이기주의자

진술문	표준점수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1.99
도시에 살기를 원한다	1.71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1.20
부모에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	1.12
나이 든 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1.07
저축보다는 소비를 많이 한다	-1.02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7
나이 든 세대보다 건강하다	-1.09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09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1.51
힘든 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2.38

주1) 각 유형의 특징을 나타내는 식별 진술문은 p값(유의수준)이 0.05 미만이면서 표준 점수(Z-score)가 1이상이거나 -1이하인 경우만을 포함하며 굵은 글자로 표시하였다.
주2) (*) 표시는 전체 유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진술문 가운데 유형 분류에 사용된 진술문을 의미한다
주3) 제1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15〉와 〈그림 3-10〉에 제시되어 있다.
주4) 제2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16〉과 〈그림 3-11〉에 제시되어 있다.
주5) 제3유형을 결정하는 진술문은 〈표 3-17〉과 〈그림 3-12〉에 제시되어 있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별 해석 부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구 참여자의 거주지역에 따른 인식 차이는 결코 통계적 유의미성이나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후속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50+세대에 대한 지역별 청장년세대의 인식 차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Q분석에 사용된 50+세대 참여자는 모두 30명으로 그 가운데 10명은 영흥도와 강화도, 즉 도서지역 거주자이다. 나머지 20명은 인천시의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해석과 마찬가지로, 50+세대에 대한 인식 유형별로 전체 도서/내륙 거주 50+세대 참여자 가운데 각 유형에 속하는 P표본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인식 제1유형에 속하는 10명의 50+세대 가운데 2명은 도서지역 거주자였다. 이것은 전체 도서지역 거주 50+세대의 20%에 해당한다. 반면, 내륙지역 거주 50+세대의 경우 20명 가운데 약 55%인 11명이 제1유형에 속한다. 이런 비율의 차이는 청장년세대가 어려운 시대적 환경을 공동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보다는 개별화되고 파편화 된 삶에 익숙해져 있다고 여기는 50+세대가 내륙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이런 결과에 대하여서는, 인천시의 내륙은 대부분 고도로 도시화되어 청장년세대 뿐만 아니라 50+세대, 다른 세대의 삶 역시 도시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제2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는 총 11명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도서지역 거주자로 전체 도서지역 참여자의 50%에 해당한다. 이것은 내륙지역 참여자 20명 가운데 30%인 6명만이 제2유형에 속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런 차이에 대하여, 과거에 비해 도서지역의 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구축된 것이 50+세대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인식 제3유형에는 50+세대 참여자 6명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도서지역 거주자는 3명으로 전체 50+세대 도서 거주자 10명 가운데 30%를 차지한다. 내륙에 거주하는 50+세대 3명이 제3유형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전체 내륙지역 참여자 20명 가운데 15%에 불과하다.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 세 가지 유형을 살펴 보면, 제1유형은 내륙지역 거주자가 속한 비율이 높고 제2유형과 제3유형에는 도서지역 50+세대의 귀속 비율이 높다. 제1유형은 청장년세대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에 대하여 안쓰러움을 느끼는 정도가 가

장 높다. 제2유형, 제3유형으로 갈수록 이 수준이 낮아진다. 반면에 제1유형은 청장년세대가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만 제2유형에서는 그 정도가 낮아진다. 제3유형은 청장년세대가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을 더 어렵게 인식하고 의존적으로 생활한다고 여긴다.

흥미로운 점은 제1유형에 속하는 도서지역 거주 50+세대와 내륙지역 50+세대 참여자의 전체 참여자 중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크고(35%p) 제2유형(20%p), 제3유형(15%p) 순으로 그 차이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즉, 도서지역 거주 50+세대 참여자는 청장년세대가 처한 상황을 가장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동시에 청장년세대 당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Q방법론을 활용한 분석에서 P표본의 구성 비율을 절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이 유형에 따라 도서/내륙 거주자 비율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제2절 결론

제4장 정책 제언 및 결론

제1절 정책 제언

1. 세대융합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인식은 유형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을 지닌다. 50+세대는 청장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공통적 특성으로 꼽고 있다.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누리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인식은 실제로 각 세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런 견해는 선입견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각 세대를 나타내는 특성이라고 여겨지는 개념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세대 안에서 그 개념이 받아들여지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장년세대가 50+세대에 대하여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세대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하여, 50+세대가 자신들이 안정적 경제 상태에 있다고 여기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혹은 50+세대가 청장년세대는 힘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청장년세대가 실제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일부의 모습이 과장·확대되어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도 있다. 특히, 언론매체가 보도하는 세대의 전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면 세대 간의 오해를 줄이고 올바른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Q방법론을 이용한 분석을 통하여 50+세대의 청장년세대에 대한 인식 유형과 청장년세대의 50+세대에 대한 인식 유형을 각각 세 가지로 분석, 도출하였다. 각 유형의 인식은 해당 세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적 통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각 세대에 대한 이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세대 간의 접촉, 교류, 상호작용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양 세대가 교류하는 방식이 서로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강화하기 보다는 상대 세대의 처지와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절에서는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세대별 상황 이해를 위한 역할극

이 프로그램은(〈표 4-1〉 참조) 상대 세대가 처한 상황을 상대 세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역할극의 주제로는 각 세대의 인식 유형을 구성하는 진술문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가령,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 중 제3유형을 진술문 가운데,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한다'와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있다'는 유형 식별 문항으로서 의미가 있는 동시에 표준점수가 음수로 나타난다. 이것은 해당 진술이 50+세대에 대한 묘사에서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진술문을 활용하여 역할극을 구성한다면,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하지 못하지만 배우려는 마음도 없다'는 주제를 선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청장년세대와 50+세대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고 각자 상대 세대의 역할을 맡아 주어진 상황을 연출하도록 한다. 관련 상황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청장년세대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50+세대 역할을 맡고 50+세대는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려 하지만 상대의 무성의함에 직면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반대로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데 큰 열의는 없지만, 막상 청장년세대가 사용법을 알려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는 설정도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상황 설정에 따라 각 세대의 참여자는 상대 세대가 느끼고 생각한다고 여겨지는 점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역할극이 끝난 후에는 다시 자신이 속한 세대가 가지고 있던 인식을 돌아보고 변화 혹은 강화된 점이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양 세대는 모두 서로의 입장에서 자기 세대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상대 세대의 행동이나 태도가 어떤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각 세대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인식과 태도를 돌아볼 수 있으며 세대통합적 관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역할극 사례 예시

역지사지 역할극

<table>
<tr><th></th><th>단 계</th><th>참여자</th><th>목적</th><th>활동 내용
※제시된 목표 유형은 예시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필요 있음</th></tr>
<tr><td>1</td><td>목표 유형 설정</td><td>· 사업 담당자</td><td>• 교류와 이해 증진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td><td>· 예시: 50+세대를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대착오자”(제3유형)로 인식하는 청장년세대의 인식을 개선을 목표로 설정한다
· 제3유형을 식별 진술문 중 적합한 것 선택: 디지털 기기를 잘 이용하지 못한다 + 무엇이든 배우려는 열의가 없다
· 사업 개시 전·후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결정</td></tr>
<tr><td>2</td><td>역할극 주제 선정</td><td>· 사업 담당자
· 50+세대와 청장년세대 당사자</td><td>• 당사자의 경험을 토대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 한다</td><td>· 해당 유형에 대한 당사자들의 경험, 반대 의견 등을 수집하여 중점적으로 개선/지원할 부분을 선택한다
· 상황 예시
<table>
<tr><td>50+ 세대의 입장</td><td>· 디지털 기기의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음
· 외래어가 많아서 배우기가 더 어려움
· 시끄러운 곳에서는 기기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당황하여 조작 실패가 더 자주 일어남
· 배워도 자꾸 잊어버림
· 여러 번 물어 보자니 미안하고 창피함
· 기기마다 이용 순서, 용어, 방법이 달라 기억하기 어려움
· 자녀나 젊은세대가 처리해 주는 것이 더 편함
· 무엇부터 배워야할지 모르겠음</td></tr>
<tr><td>청장년 세대의 입장</td><td>· 같은 것을 자꾸 물어보는 것이 귀찮음
· 알려준대로 하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옴
· 자꾸 젊은세대에게 의존하고 시킴
·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빼앗김
· 기본적인 조작법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어디부터 알려주어야 할지 모르겠음
· 이런 것도 아직 모르다니 뭐하고 사셨나 하는 생각이 듬
· 가르쳐 주는 것이나 대신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 내가 하는 것이 시간이나 노력이 절약됨
·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필요한 때만 이용하는 느낌이 듬</td></tr>
</table></td></tr>
</table>

〈표 4-1〉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역할극 사례 예시

역지사지 역할극

<table>
<tr><th></th><th>단 계</th><th>참여자</th><th>목적</th><th>활동 내용
※제시된 목표 유형은 예시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필요 있음</th></tr>
<tr><td>3</td><td>기본틀 구성</td><td>· 사업 담당자
· 세대별 당사자
· 역할극 진행자</td><td>• 구체적 상황을 역할극'상황에 맞게 구성한다</td><td>· 필요한 참여자 수, 참여자와 진행자의 역할, 공연 대상, 장소, 시간, 관객의 참여 수준 등 결정
· 예시
<table>
<tr><td>참여자 수</td><td>· 세대별 당사자 4인(50+ 2인, 청장년 2인)
· 진행자 1인</td></tr>
<tr><td>참여자 역할</td><td>· '과거에 머무르고자 하는 시대착오자'의 전형적 역할 1인
·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고자 하는 50+세대 역할 1인
· 시대착오적 50+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청장년 역할 1인
· 시대착오적 50+세대에 대하여 안쓰러움을 느끼는 청장년 역할 1인
· 각 세대의 당사자가 자기 세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상대 세대의 역할을 할 것인지 결정: 상대 세대 역할을 하는 것이 상호 이해 증진에 더 큰 도움이 됨</td></tr>
<tr><td>진행자 역할</td><td>· 제3유형이 지닌 긍정적 측면 제시
· 제3유형의 진술문이 지니는 양가적 특성에 대한 고려 독려(진술문을 소개하고 청중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 부여, 설명이나 교육이 되지 않도록)
· 역할극 진행 중 참여자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 관객이 역할극에 함께 참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시간, 적절한 참여 수준, 참여자 선택 등 계획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처
· 공연 후 참여자, 관객의 생각 공유 진행</td></tr>
<tr><td>공연 장소</td><td>· 관객 수에 따라 적절한 곳 설정
· 관객과 무대를 수평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수직적으로 배치할 것인지 결정</td></tr>
</table></td></tr>
</table>

〈표 4-1〉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역할극 사례 예시

역지사지 역할극

<table>
<tr><th></th><th>단 계</th><th>참여자</th><th>목적</th><th>활동 내용
※제시된 목표 유형은 예시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필요 있음</th></tr>
<tr><td></td><td></td><td></td><td></td><td>
<table>
<tr><td>시간</td><td>· 전체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고려하여 역할극은 15-20분 이내
· 공연 전·후 프로그램 소요 시간 안배
· 공연 대상,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일시 결정에 신중</td></tr>
<tr><td rowspan="3">관객 참여 수준</td><td>· 순수 관람: 역할극 참여, 토론 등은 하지 않음</td></tr>
<tr><td>· 관람 후 의견 제시, 인식 변화 공유</td></tr>
<tr><td>· 참여자로서의 관객: 역할극 도중 각 상황에 대한 의견, 느낌 제시: 이 경우 진행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td></tr>
<tr><td>인식 변화 평가</td><td>· 사전·사후 평가 방법 결정
· 척도 이용 혹은 서술식, 두 가지 혼용 가능
· 변화의 이유, 변화하지 않은 이유, 인식이 더 공고해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등을 기술하게 할 수 있음</td></tr>
</table>
·
</td></tr>
<tr><td>4</td><td>역할극 대본 구성</td><td>· 사업 담당자
· 역할극 진행자
· (역할극 참여자 포함 가능)</td><td>• 역할극의 주제 분산 방지
• 참여자 부담 경감</td><td>· 결정된 유형에 대한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행동, 대화, 상호작용 유형 가운데 대표적인 내용 선정
·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대본으로 구성
· 참여자는 대본을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배역이 수행해야할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더 중요함</td></tr>
<tr><td>5</td><td>연습과 준비</td><td>· 사업 담당자
· 역할극 진행자
· 역할극 참여자</td><td>• 공연 준비</td><td>· 역할극의 기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관객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본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
· 관객과의 소통을 이끌어내어 관객 역시 참여자가 되게 하는 경우 돌발 상황에 대한 예측, 대응을 미리 연습 안에 넣어야 할 필요 있음</td></tr>
</table>

〈표 4-1〉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역할극 사례 예시

역지사지 역할극

	단 계	참여자	목적	활동 내용 ※제시된 목표 유형은 예시이며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변경할 필요 있음
6	공연	· 사업 담당자 · 역할극 진행자 · 역할극 참여자 · 관객	• 세대에 대한 인식 개선, 제고, 변화, 교류와 이해 증진	· 공연 전 사전 조사 · 공연 · 공연 후 사후 조사
7	평가	· 사업 담당자 · 역할극 진행자 · 역할극 참여자	• 사전·사후 조사 결과 평가 • 전체 과정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 인식 개선 및 교류 수준 변화 평가 · 사후 교류 지속 가능성 평가 및 실행 방안 모색 · 개선 사항 반영 방안 모색

2) 세대를 묘사하는 도서, 영화 등 컨텐츠를 활용한 이해 증진 활동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각 세대를 묘사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표 4-2〉 참조). 도서,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노래 가사, 그림이나 사진과 같은 컨텐츠 가운데 특정 세대를 주제로 삼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랜 취업 준비 끝에 고립된 생활에 빠지고 은둔하게 된 청장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50+세대의 시각과 청장년세대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다. 해당 컨텐츠를 함께 시청한 후 청장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절망, 사회경제적 어려움, 롤모델의 부재 등의 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진행자, 세대를 대표하는 패널, 청중이 의견외에도 전문가의 제언이 포함된다면 세대 간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장년세대가 보이는 행태 이면에 있는 원인 발견, 공감대 형성, 어려움 완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다. 나아가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을 함께 할 소모임, 플랫폼 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세대 간 대화와 이해 노력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당사자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할 수도 있다.

〈표 4-2〉 컨텐츠 활용 이해 증진 활동 예시

跩世歲(세세세:세대와 나이를 허무는) 토론회

대상 유형	청장년 제1유형: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톨이
특징적 진술문	•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 •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 부모에게 의지해서 살지 않는다(부모에게 의지해서 산다에 대한 부정진술: 혼자 어려움을 해결하려 한다) • 게임에 중독되어 있지 않다(게임에 중독되어 있다에 대한 부정진술: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 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나이든 세대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에 대한 부정진술: 자기와 비슷한 세대와 어울린다)
함께 볼 컨텐츠	• 추적60분"하루에20시간잔적도있어요" 쉬거나, 고립되거나, 은둔하거나……절망감에빠진청년들. KBS. 20240607 방송(9분25초) https://www.youtube.com/watch?v=CT--6f41mHw&t=118s
참여 대상	• 청장년세대, 50+세대를 포함한 누구나
토론회	• 진행자, 세대별 대표자 1-2인으로 구성된 패널 •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 절망, 사회경제적 어려움, 롤모델의 부재 등의 주제에 관한 토론회 기획, 진행 가능 •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의 장 마련에 노력**과 결합된 프로그램임
기대효과	• 청장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시각 공유 • 밖으로 드러난 행태 이면에 있는 고통의 원인을 함께 찾아보는 과정에서 **세대 간 공감대 형성** 가능 •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고민할 수 있음

3) 기존의 세대별 프로그램의 참여 대상자 확대

본 센터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가운데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특강의 내용은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획되며 홍보된다. 과거 본 센터의 연구특강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50대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젊은 세대는 특강의 주제나 주최 기관, 장소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아래 〈표 4-3〉에 소개한 사례와 같은 연구특강은, 실제로 청장년세대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과 준비의 기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청장년 시기에 생각하는 노년기 삶과 중년기 이후에 바라보는 노년기에 대한 시각을 비교하면서 세대 간의 입장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여러 세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참여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 장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홍보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청장년세대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추가로 넣는 방식으로 다양한 세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세대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한국행정연구원, 2024)를 갈등 요인의 감소보다는 교류와 만남이 적어져서 갈등의 여지가 없기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한 장소에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표 4-3〉 세대별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확대 예시

노후준비에 나이는 없다!

사업 명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특강(제2회)
대상	인천시민 누구나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	50대 이상의 은퇴자, 은퇴 예정자
참여 대상 확대 방안	• 젊은 시절부터 노후준비를 계획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 홍보 • 청년이 많이 모이는 장소(유유기지 등)에 홍보물 게시 • 청년세대 및 다른 세대의 참여 독려 문구 삽입 등
기대효과	•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 제공 • 각기 다른 세대가 같은 주제를 고민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 • 이후 토론회 등으로 발전시켜 교류의 장 마련 가능

4)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모든 세대를 참여 대상으로 하도록 독려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을 살펴보면 두 세대 모두 상대 세대와의 교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 간 교류가 이루어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덜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세대 연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 오히려 세대 간의 상호작용 가운데 갈등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세대 간 이해 증진, 세대통합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각급 교육 기관, 복지·여가 기관 등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세대 간 이해 증진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50+세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것은 세대 간 이해 증진에서 50+세대가 지닌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50+세대가 노인세대, 청장년세대, 아동세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이들을 활용하여 전체 사회의 세대 간 이해 증진과 세대통합을 성취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1〉은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예시들을 참조하여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성격에 맞게 변형,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50+세대와 청장년세대 모두 상대 세대와의 교류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러 기관에서 이들 세대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 연령대가 이용하는 종합복지관에서 청장년층과 50+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주로 특정 연령대나 세대를 대상자로 삼는 경우가 많다. 세대 간의 편견을 줄이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세대 간 교류와 융합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직장이나 가사로 인해 낮시간 참여가 어려운 청장년세대, 50+세대를 위한 저녁, 주말 프로그램 진행 역시 고려할만 하다.

〈그림 4-1〉 WHO 제시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

자료: WHO, 2024.https://www.who.int/multi-media/details/there-s-an-intergenerational-activity-for-everyone

5) 토론회, 공청회와 같은 공론의 장 마련에 노력

세대 간 인식에 대한 논의의 장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다양한 기관, 지자체, 중앙정부는 여러 세대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힘써야 한다. 세대 간 이해는 사업을 기획, 운영하는 실천 현장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가지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정책 이슈나 사회 현상에 대한 각기 다른 세대의 의견을 공적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하여야 한다. 사적인 의사 교환은 개인 간의 세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견 교환이 가능한 공론의 장은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의견 수렴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세대의 의견이 담긴 정책 개발, 사회현상에 대한 다면적 이해,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해법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공적 논의의 장은 세대 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일상생활 안에서 다른 세대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크고 작은 기관과 다양한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세대 전형성에 대한 인식 개선

1) 부정적 이미지 개선, 긍정적 이미지 강화 방법 모색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상호 인식 유형에서는 각 세대에 대한 전형성이 드러난다. 청장년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편리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50+세대는 변화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각 세대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 구성원이 모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각 세대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공정하지 못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거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이나 홍보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은 가정을 돌보고 남성은 집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던 사회에서는 교과서에서조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역할을 구분지어 묘사하곤 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에는 과거의 성역할 인식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 학대와 차별에 대

한 인식 등 역시 수 많은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홍보와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확산: 법정 의무 교육 등에 포함 고려

앞서,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운데 한 가지로 인식개선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인식개선은 구체적이고 탄탄한 계획과 실행이 있을 때 성취될 수 있다. 세대 간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은 사회 일부만이 아닌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꾸준한 세대 간 이해 교육을 제공할 때 인식과 사회 분위기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감수성, 학대와 차별 관련 교육이 그러한 것처럼, 세대 간 이해 관련 교육 역시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3)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개선 촉구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을 감소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Q진술문 구성을 위한 자료 조사 과정에서 언론, SNS, 다양한 미디어가 여러 세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정보를 다량으로 배포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왜곡된 이미지와 부정적인 정보는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단절, 혐오,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세대의 입장에서 다른 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형태의 정보나 진술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세대 간 갈등을 넘어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여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매체와 정보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 활동은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나 모임에서 수행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는 고령친화환경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임의 구성원들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매체와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먼저 구성원에게 세대 간 교류와 이해의 중요성, 세대 갈등의 부정적 영향, 세대 갈등 조장 사례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왜곡된 정보를 발견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발견된 사례에

대해서는 구성원 간의 논의를 거쳐 정정 요청, 삭제 요구,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대한 건의 등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 처리 후에는 개선 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 개선 정도, 향후 추가 모니터링 여부 등을 평가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세대 갈등 조장 매체 및 정보에 대한 감시 및 개선 요구는 대중에게 올바른 세대 간 인식을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개인의 세대 인식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제2절 결론

본 연구는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상대 세대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또한 해외 혹은 국내 사례를 통해 이 두 세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세대 간 이해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세대가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관적 인식 파악에 가장 유용한 도구로 알려진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Q방법론을 통해 청장년세대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을 3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였고,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 역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세대가 인식하는 상대방 세대의 특성에는 차이점과 함께 공통점 역시 존재하였다.

50+세대는 청장년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에 대하여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그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청장년세대의 디지털 역량이 높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일부 50+세대는 청장년의 디지털 의존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대로, 청장년세대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50+세대의 인식이 상반되게 나타난 것처럼, 이들의 경제적 태도에 대한 평가 역시 상반되었다. 50+세대 인식 유형 가운데 청장년세대가 나이 든 세대와의 교류를 선호한다고 인식하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청장년세대가 윗 세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한 세대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50+세대의 경제적 안정에 대하여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청장년세대의 일부는 50+세대가 경제적 안정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장년세대 가운데는 50+세대가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청장년세대는 50+세대 역시 젊은 세대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50+세대에 대한 청장년세대의 인식은 반대의 경우보다 더 분명하게 구분된다. 제1유형의 청장년세대는 현재의 50+세대가 과거의 50+세대에 비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동시에 보수적이고 수직적 관계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하는 특성을 보인다. 제2유형은 50+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과거와 현재에 모두 충실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뚜렷한 주관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사회 구조에 대한 진보적이고 열린 태도를 보

인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다만 해당 유형에서도 50+세대가 다른 세대,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를 선호한다고 여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유형에서 청장년세대는 50+세대가 과거의 성과나 관습에 기대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대 사회의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나 배우려는 열의마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점,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 구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보는 점 등은 이런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0+세대와 청장년세대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고 각 유형에 맞는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50+세대와 다른 세대, 특별히 청장년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제안하였다. 또한 50+세대와 청장년세대가 서로에 대하여 지니는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사회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법정 의무 교육에 세대 간 이해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에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컨텐츠에 대한 감시와 개선 촉구를 제안하여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권채리(2022). 세대갈등의 배경과 법적함의: 68세대부터 코로나 세대에 이르기까지. 법과 사회. 71. 323-355.

김순은(1999). Q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김순은(2007). Q방법론과 사회과학(Qmethod&sociaology). 금정. 부산

김순은(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김찬호(2018). 세대통합. 50+리포트, 9. 서울50+재단. 서울

김흥규(1992). 주관성 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간호학 논문집. 6(1). 1-11.

김흥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길병옥·이소희·이송이·정희정(2020). Q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심솔비(2024). Q방법론을 통한 유아특수교사의 특수교육대상유아 놀이 지원 인식 유형별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이재경(2018). 세대갈등의 양상, 원인, 대안모색: 한국의 렌트(추구)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18, 18-47.

이현주(2021). 초등교사가 인식한 학습부진학생의 학습동기 유형. 박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임유진(2021). 복지와 세대 갈등의 상관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대한정치학회보, 29(2), 53-73.

전미경·구인혁(2024). 성공적인 창업교육의 비결: Q방법론을 통한 인식유형 분석과 전략적 시사점. 기업가정신연구. 5(2).49-75.

전재영(2024). 기업상담에 대한 근로자와 관리자의 기대유형: Q방법론을 적용하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순둘·이수영·박민선·신보람·김지연 (2021). 연령집단간 세대갈등의 영역과 원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3(3), 229-253.

진상현(2006). Q방법론: 주관적 의식에 관한 연구로의 초대. 국토. 302. 123-131.

최문경·신원식(2019).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인식유형: Q방법론의 활용. 사회보장연구. 35(4). 63-88.

하석철(2022).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실행계획 수립 연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

한국행정연구원(2024).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지수·박윤정(2023). 인천시 세대통합 증진을 위한 상호작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보고서. 인천.

황선재(2022). 인구고령화와 세대갈등: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형평. 사회과학연구, 33(2), 149-172.

Sergei Zelenev(2008). Towards a “society for all ages”: meeting the challenge or missing the boat. International Science Journal, 58(190), 601-616.

Simon Watts & Paul Stenner(2014). Q방법론 연구의 실행: 이론방법해석, Doing Q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2012), 백평구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서울.

서울시50플러스재단 웹사이트. https://50plus.or.kr/org/Social_contribution.do (검색일 2024-1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Search/%EC%84%B8%EB%8C%80?field=&type=&alias=false&body=false&containdesc=false&keyword=%EC%84%B8%EB%8C%80 (검색일 2024-10-10)

Connecting Generations(2024). Swedish Dialogue Institute & The Folke Bernadotte Academy. https://www.connecting-generations.org/ (검색일 2024-10-28)

Generation at Work.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global-intergenerational-week/country-leads/sweden (검색일 2024-10-24)

Generations Working Together.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 (검색일 2024-10-24)

Global Intergenerational Week. https://generationsworkingtogether.org/global-intergenerational-week (검색일 2024-10-20)

Intergenerational Dialoue. https://www.jfsvancouver.ca/events/learning-from-each-other-intergenerational-dialogue-programs/ (검색일 2024-10-24)

Lifelong Learning.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lifelong-learning-strategy (검색일 2024-10-24)

The Intergenerational Schools. https://igschools.org/ (검색일 2024-10-24)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Netwrok for Age-friendly Coties and Communities.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age-friendly-cities-framework/ (검색일 2024-1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Demographic Change and Healthy Ageing (DHA). https://www.who.int/multi-media/details/there-s-an-intergenerational-activity-for-everyone. (검색일 2024-10-28)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정책연구 2024-05

인천시 세대 간 이해 증진 방안 연구: 50+세대를 중심으로

발 행 일 ‖ 2024년 12월
발 행 인 ‖ 박정숙
발 행 처 ‖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주 소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10층
전 화 ‖ (032)715-5491 팩 스 ‖ (032)715-5319
홈페이지 ‖ https://www.inlife.or.kr/
인 쇄 ‖ 포커스인천 (032)268-6918

ISBN 979-11-90449-10-6 : 비매품

본 보고서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에 있으며,
본 센터의 허락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